



우리의 우둔한 생각을 깨우치고 고집스런 마음을 깨뜨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걷는 인생의 길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5월 18일 (토) 제 1730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CT, 라이언 버지 교수의 ‘미 복음주의 태생적 한계 백인중심 틀 탈피’ 기고 보도

미국사회에서 보수적 크리스천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음주의(Evangelicalism)’라는 말이 최근 부정적인 이미지로 브랜드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에 벗어나야만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이스턴일리노이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라이언 버지 박사는 최근 크리스처너티투데이를 통해 미국의 복음주의가 인종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밝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ace, Religion, and the Future of American Evangelicalism: Three important trends regarding race and faith that must be considered as we try to lead...

리서치 기관들이 동성결혼, 낙태, 이민, 그리고 더 나아가 다가올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 계획인지 복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러한 조사는 늘 있는 일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5명 중 1명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다. 이것은 곧 미국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투표 집단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최소한 1명의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란 도대체 누구일까? 많은 여론조사원과 저널리스트들은 복음주의자는 대개 백인이며, 도시근교 거주민, 미국인, 남부인, 공화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칭 복음주의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한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정치적 관심에 대해 조사를 하면 2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자”가 “백인”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복음주의자에 대한 정의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리 내려진다는 사실이다.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도 주된 방법도 투표가 아니다. 정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가 복음주의자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으며, 규정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백인이라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더욱 다양해졌고, 복음주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복음주의자”는 “백인”이라는 등식은 복음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복음주의’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위한 빠른 탈피가 요구되고 있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여론조사방식은 비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복음주의자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대적 아니면 아군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백인 복음주의자들 역시 자신들만의 아집과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타 인종 크리스천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각을 갖게 한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정치적 대적 아니면 아군으로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백인 복음주의자들 역시 자신들만의 아집과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타 인종 크리스천들에 비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20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당목사의 연락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리스팅 작업 마감 8월말, 광고 8월초 마감

명실공이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20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8월말이며 광고마감은 8월초까지 가능하다. 본 주소록에 리스팅 게재를 원하는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은 게재 내용을 8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2면

발행인칼럼
김경국 목사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ATS 정회원
석사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월드미션대학교
박사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오프)	온라인 프로그램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별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제4회 PGM 선교사 집중훈련

일정 2019년 6월 17일(월) 오후 4시 - 6월 23일(주일) 오후 1시 (6박 7일)

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휴,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400 / 부부 \$600 (항공료 자부담)

장소 • 6월 17일-20일 NJ Christian Academy
• 6월 21일-23일 필라 안디옥교회

훈련내용 선교의제4물결,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 디아스포라, H&N, 전문인,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 땅광선교), 전문인선교사례, 타문화전도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선교집회 등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전문인선교헌신자들을 초대합니다!

선교집회



6월 17일(월)
임재영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전, 이스라엘 선교사



6월 18일(화)
고훈 목사
뉴욕 하운교회
PGM 정책이사장



6월 19일(수)
양춘연 목사
Hispanic Ministry
PGM 선교사



6월 20일(목)
김은범 목사
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PGM 정책이사

강사진



안사무엘 목사
PGM 실명총무



Jay Kim 전도사
PGM 영어권 훈련부장



박상수 선교사
교육전문/강사사역
PGM 선교사



김현영 선교사
농축산전문/순회사역
PGM 선교사



정준영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사역
PGM 선교사



2016년 제1회 선교사집중훈련 2017년 제2회 선교사집중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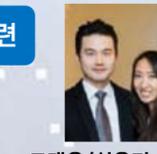
2018년 제3회 선교사집중훈련



박현 선교사
KCBMC 사무총장
PGM 선교사



이태후 선교사
필라도시민선사역
PGM 선교사



고대은/성은지 선교사
다민족교회개척사역
PGM 선교사

PGM 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 610.397.0484

● 발행인 칼럼 ●

은사와 직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하나님은 직접 은사를 주신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신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여러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은 귀하고 아름답다. 은사와 직분이 어울리면 가장 좋다. 은사가 없는 직분은 큰 아쉬움을 자아낸다. 은사도 없는데 역지로 직분을 맡기면 본인도 괴롭고 보는 이도 힘들다. 성경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빛나는 참모(參謀)가 많다. 그것이 그들의 은사이며 공동체의 복이다. 리더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리더의 직분을 주면 그 직분의 기간 동안 머리 아플 일이 많다. 그 직분이 항존직일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직장생활을 효과적으로 잘 하던 사람이 누가 부추겼는지 자신이 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는지 덜컥 자기 사업하다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일이 왜 한둘이겠는가. 직분이 없는 은사도 있다. 직분이 없는 은사는 때때로 공동체에 위험을 안기거나 정반대로 감동을 주기도 한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 나를 알아 모시라"는 교만의 헛기침은 직분도 없지만 은사도 없는 사기(詐欺)일 경우가 농후(濃厚)하다. 직분은 없지만 은사로 그 공동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사람도 적잖이 있다.

기독교 아동문학가로 살았던 권정생 작가의 작품 "몽실언니"는 그 이름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면서, 나의 어린 소녀 몽실일 뿐인데 오히려 생부(生父), 생모(生母), 계부(繼父), 계모(繼母), 그리고 친동생, 이복(異腹) 동생을 다 품는 것을 물론 한국 전쟁의 아픔까지 다 가슴에 담아내는 모습을 보인다. 직분은 없지만 모든 이의 어린 같은 나의 어린 소녀 몽실언니는 직분 없는 은사의 감동을 보여준다. 둘러보면 교회 안에 직분은 없어도 주님과 교회를 묵묵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마치 빈 상자처럼 여긴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돕슨(James Dobson)의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은 "Gift of Love"인데 그의 친구와 그 친구의 어린 딸 이야기였다. 어느 날 친구가 그의 어린 딸이 황금색 포장지를 낭비한다고 혼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딸이 그 다음날 황금색 포장지로 쓴 상자를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 선물상자를 열어본 친구는 "이게 뭐냐"며 또 딸을 혼내주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자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딸이 말한다. "아빠, 그 상자는 비어있는 것 아니어요. 내 사랑의 키스를 가득 넣어 담은 것이어요." 친구는 딸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는 글이다. 그렇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이와 같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것 같이 얼마나 무시하는가. 성령의 루하흐(바람)로 가득 찬 은사, 사랑의 선물 상자를 외면한 무례(無禮)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쉽지 않다. 지명을 할 때도 그렇고 선거를 통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지명을 할 때는 목사님이나 당회자 사사(私事)로이 세우는 줄로 알거나 선거를 할 때는 교인들의 인기투표로 착각(錯覺)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가 이미 풍성하고 이미 받은 직분도 귀하게 받쳐 어떤 한 직분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맡은 자의 사려 깊은 생각을 요청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직분을 생각해야 한다. 내 중심으로 직분을 생각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진다.

은사와 직분은 애당초 나의 것이 아니다. 결단코 교회로부터 출발한 것도 아니다. 유일한 근원(根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사와 직분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혹 직분은 없더라도 겸손히 주어진 은사를 통해 묵묵히 섬김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면 은사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교회와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겠는가.

기계가 자동으로 노동자 해고하게 된다면?

BBC, 생산성 최대화위해 AI에 해고당하는 부작용 있다고 보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을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 여러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5G 상용화 선연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고용시장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로봇의 자동화 기술에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미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양상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말이다(The Future of Work).

테크 뉴스전문매체 '더 버지'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자동화 기술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해고한다는 자료를 찾아냈다. 이 매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것은 생산성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더 버지에 따르면, "아마존의 시스템은 개인의 생산성을 기록한다. 그리고 생산성이나 품질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하는 사람의 지시 없이 경고 또는 해고와 관련된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전자상거래업계의 거인(아마존)은 이미 낮은 임금과 척박한 노동환경 때문에 수차례 뉴스에 등장했다.

처럼 취급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하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고 약속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기계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정도로 교체될 수 있거나 교체해야 하는지입니다."

자동화 붐 속에서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산성 기록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조직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이 개입이 필요한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인공지능 분야 시니어 에디터인 윌 나이트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기록이 우리 일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



직업의 미래...자동화 기술이 노동자 생산성 기준에 의거, 감시 해고 노동자는 일터에서 존중받아야...함부로 대하면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화장실도 가기 힘들 정도로 목표치가 높아 몰도 안 마신다고 말했다. 예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한 노동자는 직원들이 "로봇처럼" 취급되고,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고 잘리는 게 다반사라고 했다.

더 버지의 보도 역시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짐을 나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장 상사가 됐을 때 벌어지는 한 가지 시나리오다. 알고리즘이 많은 인간의 개입 없이, 노동자를 기록하고 경고하며 해고도 할 수 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재심을 청구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더 버지에 따르면 이 역시 해고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지역 내 산업을 지원하는 단체인 ILSR(the Institute for Local Self-Reliance)의 스테이시 마철크는 "아마존 노동자들은 로봇에 의해 로봇

보입니다."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생산성의 기준이나 자동화의 범위 등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존이 BBC를 비롯해 이를 묻는 모든 매체에 내놓은 유일한 답은 이렇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처럼 우리도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회사 다른 부서나, 일하는 곳이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업무 개선 코칭 등 충분한 지원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해고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자사의 노동자들이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자동화를 적용한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사는 1주일 전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해 배송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물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미래의 노동은 어떻게 될까?

수년간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사용해 노동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기록해왔다. 세 일즈 실적부터 공장 퇴근시간까지 디지털 분석이 적용된 폭은 넓었다.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의 이사인 데이비드 디 수자는 "이미 세상에 나온 기술은 불가피한 것이고,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그 기술을 실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식으로 일을 하고, 아마도 일하는 방법에는 '옳은 방법'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이 보낸 메일의 숫자를 가지고 생산성을 추적한다면 그저 메일을 많이 보낸 이가 더 생산적인 노동자처럼 보이겠죠. 다른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성과를 내더라도 말이죠."

생산성을 판단할 때 상대적 기준이 쓰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존의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 단초다. 더 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생산성 기준을 사용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674-7982 (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 (718)886-0074(대표)
· E-mail: nyoh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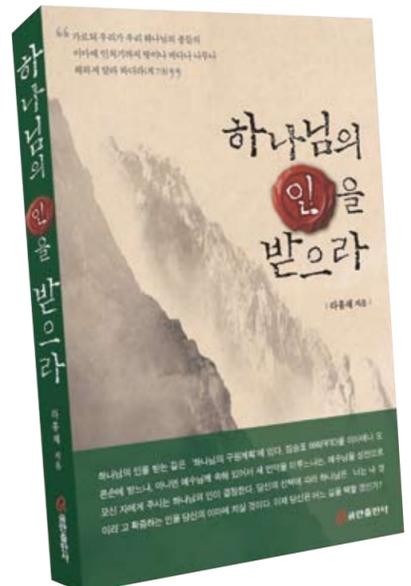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1면에서 계속)

2017년 공공종교연구소(PRI)는 “트럼프 시대의 당파 양극화: 2018년 미국 가치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다수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가치와 관습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에서 백인 개신교도의 절반 이상인 57%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답했으며, 유색인종 개신교도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히스패닉 개신교도의 63%와 흑인 신자의 67%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2045년 미국의 인구가 아시안·흑인·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센서스의 결과 보고에 대해 백인 복음주의 교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백인 크리스천들의 54%는 이러한 인종의 다양성 변화가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흑인 신도들의 80%, 히스패닉 신도들의 79%가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백인 복음주의 신자들의 반이민 감정이 미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땅이라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앤드류 화이트헤드 클렘스대 사회학 교수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 백인 복음주의 신자의 이민자들에 대한 상상을 생성했다”며 “백인 복음주의 신자들은 미국을 크리스천 국가로 생각하고 인종의 경계를 굳힌다”며 “이는 반이민 정서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라이언 버지 박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복음주의와 백인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다양성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

이 있어야 하며 2)아프리카계와 라틴계 중 무교(종교가 없음) 젊은 층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3)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들이 예배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백인으로 집약되는 복음주의는 미국의 인종적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오는 2045년에서 2050년 사이에 백인 인구의 비중은 절반 아래로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백인 인구의 평균연령은



급격하게 높아지지만 다른 인종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젊어지고 있다. 또 소수인종의 출산율이 백인을 추월하게 된다.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음주의 구성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무종교’ 인구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 공동의회선거연구소

(CCES)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21세 미만 히스패닉과 흑인 인구의 3분의 1이 자신을 ‘무종교인’이라고 정의했다.

조사 연령대를 40세로 확장할 경우에도 히스패닉은 20%, 흑인은 30%가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밝혔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소수인종의 종교적 상태를 보여주는 통계 결과다. 이는 복음주의 신앙이 저변을 확대할 여지가 소수계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게다가 예배 참석률은 백인보다 소수 인종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의 비중을 인종별로

조사한 결과, 백인은 31.4%에 불과했지만 아시안에서는 51.7%로 급증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종이 섞인 경우가 38.1%, 히스패닉이 36.7%, 흑인 36.4%를 차지했다. 백인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재의 복음주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드러나는 통계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말과 경주도 할 수 있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면모가 짙게 느껴지는 선지자라 할 수 있다. 그는 부르심 받을 때에도 자기는 어렵고 말할 줄도 몰라서 선지자로는 부적합하다고 거절했던 사람이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 만큼 고생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는데 고통을 의연하게 당하기보다는 범상한 사람들처럼 한없이 무기력하고 가급적이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 사람이기도 했다. 왕을 만난 자리에서는 다시는 저 캄캄한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한 어찌 보면 좀

비굴한 모습조차 보이는, 그래서 더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한 선지자였다.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도 못한 연약하고 평범한 선지자였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은 그대로 충직하게 전하여 사람들이 싫어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해 선지자 사역을 그만둘 마음도 많았던 사람이고, 그들을 죽여주시기를 구하기도 했던 너무나 인간적인 선지자였다.

그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할 때 그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 같다. “너무 힘들겠구나. 내년 이맘때까지는 내가 다 악한 인간들을 정리해 줄게.” 아니면, 최소한 “나도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들냐?”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의 평균 시속이 70km인 반면 건강한 사람의 평균 시속은 10km에 불과하다. 말과 경주를 한다니,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다. “너, 지금 너무 약한 소리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다 아시지만 이런 방식으로 예레미야에게 그 사명을 다 하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다. “힘들다. 어렵다. 지쳤다. 여기까지다.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우리는 달리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한테 말과 경주라니?

이집트의 기독교 신자들을 콥틱교도라 한다. 콥틱교는 개신교와 외견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현재 이집트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천만 명이 콥틱교도다. 7세기에 이슬람이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기독교 말살정책으로 박해를 당하며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00년이 넘게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어느 날 정부의 지도자가 콥틱교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모카탐 마을에 가서 살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고 하였다. 모카탐은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곳이다. 언제나 악취가 진동을 하며 쓰레기와 만지러운 곳이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는 말에 주저 없이 수락하여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산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새기기 위해 팔뚝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 그곳의 성도들은 모카탐에 살면서도 항상 밝은 표정을 잊지 않는다. 놀랍게도 쓰레기 하치장을 지나 깊숙이 들어가면 2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위를 깎아 만든 지하동굴교회가 있다. 이 동굴교회는 이집트의 성지순례 코스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 리비아의 해변에서 이슬람국가 IS에 의해 21명의 청년들이 잡수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온 벌러간 콥틱 청년들이었다. IS는 신앙을 부인하고 회교도가 되면 죽이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참수되어 해변을 피로 물들였다. 그들은 말과의 경주에서도 승리한 자들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져 버렸다. 우리는 말과의 경주도 해야 할 사람들인데... 더 강해져야 한다.

thechoi82@yahoo.com

(2면에서 계속)

“아마존은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오직 75%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목표율이 변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스테이시 미첼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아마존의 생산성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는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새 목표를 충족시키려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결국 목표를 따라잡지 못한 사람들은 해고될 위기에 처한다. 스테이시는 “하위권으로 쳐져서 실직하지 않으려는 미친 경쟁”이라고 덧붙였다.

“1년 전에는 당신의 다른 노동자들보다 생산성이 좋은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 생산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비드 디 수자는 고용이나 해고와

같은 절차에 과연 자동화가 필요하지 기업들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과정이나 절차가 자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의 상호작용이 한 줌의 코딩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습니다.”

이브라힘 다이알로는 지난 2018년에 직장에서 관리자가 아닌 기계에 해고를 당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상사는 당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저는 해고됐습니다. 바로 위 상사는 물론,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상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올 때 그저 무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니다.”

다이알로의 바람은 자신의 사례가 너무 많이 자동화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데이비드 디 수자는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볼 때, 인류가 수백 년이나 퇴보하는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조직은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브랜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재정 측면에서도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노동자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이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으로 퇴직해 반대의 뜻을 전하고 의식 있는 커리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33rd Anniversary
1986-2019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Global Leadership Forum & 2019 Commencement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학위 수여식

세계 미래 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설립한 Midwest University는 미국의 높은 교육 장벽에 도전하여 많은 난관속에서 글로벌 대학교로 성장하여 이제 33 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글로벌 리더십 포럼과 학위 수여식에 교민 여러분과 동문 가족을 초청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John R. Ashcroft, JD
Missouri Secretary of State
현, 미주주주 국무장관



Dr. James Song
Founder / President
설립자, 총장



Dr. Jong Yong Lee
Pastor, Cornerstone Church
Harbor City, CA



Dr. Se Cheon Eom
Midwest Professor
교육 리더십 교수

Midwest Summer Seminar
May 20-23, 2019

Global Leadership Forum
May 23, Thursday 9:00-12:00 pm

Commencement
May 23, Thursday 3:00 pm

IEA Ordination Service
May 23, Thursday 6:30-8:00 pm

경영대학(원) B.A 경영학, 마케팅, MBA 리더십, 투자, 자산관리, 부동산, 비즈니스 경영, 공공정책과 행정, 공공 안전, 보안, 마케팅, 인력관리 리더십, 지역개발, 분쟁조정과 협상

국제항공대학 B.S 국제조종사, 항공정비사 (FAA 조종사, 정비사 면장과정)

교육대학원 M.A Education 두뇌개발과 영재교육, 기독교교육
M.A English Education (TESOL) 영어교육석사

신학대학(원)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D.Min 상담, 선교, 교육, 목회신학

상담대학원 M.A 결혼과 가족상담, 기독교상담, 학교상담

음악대학원 BM, MM, DMA

리더십 대학원 MBA 글로벌 리더십 Doctor of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Ph.D. in Leadership 조직 리더십, 사역 리더십,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경영 리더십, 공공 정치 리더십, 국제 항공 리더십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e@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준비 못한 목사

오래 교제하는 목사가 있다. 오랜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 했더니 전에 없이 풀 죽은 음성이다. 금년이나 내년엔 은퇴를 한다고 한다. 정년을 꼭 채우지 않고 물러나는 형세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가 무척 힘들어서 하는 음색이다. 그럴 때는 여비를 보낼 테니 로마로 와서 얼마 동안 지내다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까 싶다. 그는 은퇴한다 해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웅얼거린다. 그는 소위 자유스런 신학교를 나왔다. 나는 보수 신학교를 다닐 때 자유로운 신학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자들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하면 안 될 사람들로 각인했다. 그런데 구라파에서 초교파로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를 주관하면서 그를 알

았고 회개를 많이 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윤리관과 성서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양한 재능으로 충만한 예술가다. 그림실력이 대단하여 국전에 입상하기도 했고 사진을 잘 찍어 대상을 여러 번 받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목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공부도 잘하고 또 많이 했고 정의에 대한 의문이 충만하여 육에 갇지 인정 비겁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작은 교회 목회를 해오고 있다. 작은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으로 자족해야 은퇴에 대한 것은 꿈꿀 여지도 없었다. 늘 절곡의 가쁜 숨을 헉헉거려야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해야 할 시점에 서게 되니 캄캄한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분은 공부를 잘

하거나,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목회는 뛰어난게 잘하는 분이 있다.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지 싶다. 교회 앞 가로수가 심어 미터간격으로 심겨져 있다. 돌베나 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같은 지역, 같은 땅, 같은 조건에서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아주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놀라운 학위도 없는데 그에게 구름 떴처럼 성도들이 몰려든다. 목회 중에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다가 은퇴했다. 그의 기사가 기독교계통의 신문, 또는 일반 신문에까지 실렸다. 그는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머리말 기사가 요란하다. 탐욕을 정복한 목사로서 이 시대의 아

주 드문 의인의 표상처럼 그려졌다. 그에게는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 그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할까 싶다(모든 목회자는 이런 것을 꿈꿀 것이다). 그러나 그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들이 답이었던 교회는 큰 교회이기에 전별금은 대단했을 것이다. 차라리 그 퇴직금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몇 십 명의 가난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싶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다. 일찍이 마르실리우스(Marsilius of Padua, 1280-

1343)은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단지 사용권만 갖는다고 했다. 오랜 싸움으로 유명했던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하는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다. 즉 소송비로 몇 백억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 모든 것이 성도의 헌금인데 말이다. 그 돈이라면 돈 때문에 실의에 빠질 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넉넉히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평생 사역하고 은퇴해야 할 시점에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풀죽은 음성에 오만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은 주님께 빨리 재림하시는 일이었지만, 어찌 하든지 그에게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고 싶다. 평생 주님 바라보고 외길을 걸은 사랑하는 친구, 그로 하여금 환한 웃음을 짓게 해주고 싶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양수철 목사
(에버그린 선교교회)

먼저, '삶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삶을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크고 깨끗한 마음이라는 냄비를 준비'한 후, 냄비를 '열정'이라는 불에 달굽니다. 충분히 달구어지면 '자신감'을 교만이라는 눈금이 안보일 만큼 붓습니다. 자신감이 잘 채워지고 나면 '성실함과 노력'이라는 양념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이때, '우정'이라는 양념을 어느 정도 넣어주면 훨씬 더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약간의 특별한 맛을 원할 경우, '이성(異性) 간의 사랑'을 넣어주면 좀 더 특별해집니다. 이 사랑이 너무 뜨거워지면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생가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생길 경우는 '질제'라는 국자로 집착을 걷어내면 됩니다. 이때, 실패하면 '실연'이라는 맛이 나는데, 이 맛은 아주 써서 어쩌면 음식을 망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쓴맛을 없애고 싶을 경우, 약간의 '용서나 너그러움',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넣어주면 어느 정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깊은 맛을 원할 경우는 약간의 '선행과 관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가끔, '질투와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계속 방치해두면 음식이 타게 되므로 그때그때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가끔 '권태'라는 나쁜 향이 생기는데, '도전과 의욕'이라는 향료를 넣어서 없애야 합니다. 이쯤에, 만약 삶이라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지치게 돼서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신앙'이라는 재료를 넣어주면 새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알게 되면 '기쁨'이라는 맛이 더해 가는데, 그 맛이 더해져 잘 어울리다면 진정한 '자유'라는 맛이 생기게 됩니다.

그 후에 '평안'과 '감사함'이라는 행복한 향이 더해짐으로 음식의 완성도도 높아집니다. 이 향은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이웃에게 베풀어 주고 싶게 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요리하는 끝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이라는 양념을 넣어 한소끔 끓인 후에 간을 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소스를 듬뿍 뿌려주면 모든 맛이 더욱 잘 어울려서

할렘할렘한 맛이었으므로, 편하긴 하지만 일할 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하려 나가려면 웃을 입은 후에는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만 했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끝장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 희희낙락(喜喜樂樂)하지 않고, 우리가 장군처럼 들판에 나가 야영을 합니다(삼하 11:11). 그리고 진나라의 대표들을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시달렸습니니다. 진나라의 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화제(話題)로 삼은 자도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각 고을의 대표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법은 세 가지만 둘 뿐입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정도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그 밖의 진나라 법들은 모두 폐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의학계에는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증상은 신체발육이 부진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주로 전쟁고아나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병균이나 영양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는 뜻입니다. 죄란 일종의 빚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용서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를 영어로 forgiveness라고 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용서라는 pardon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지!"하는 마음을 품어도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뿌리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있으면 비가 올 때 독초는 다시 자랍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로 미움의 뿌리를 뽑아 내지 않으면 화가 날 때 다시 분노의 싹이 틈니다. 분노의 싹이 틈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죄들을 용서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2-14절)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기서 용납이란 단어의 원어(헬라어)는 '아네코마이'인데 '지지하다, 받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들은 만한 사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용납은 상대방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13절 중간 부분을 보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되'라는 원어는 '카리조마이'인데, '빚을 탕감하다'(to cancel a debt, 7:43)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입니다. 일반 달란트라고 하면 6,000 x 10,000 즉,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지요. 그러므로 6천만일(日) 즉, 23만년 동안 일해서 1불도 안 써야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해도 2,300번 다시 태어나서 일해야 다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말씀의 요점(要點)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13)고 하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불법이 성행하는 삭막한 시대에 뜨거운 사랑의 화신이 되어 주님처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맛있고 깊은 맛이 나는 '삶'이라는 음식을 맛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설교는 좋은 재료들(66권의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맛있고 영양가 넘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품들이 모여 맛있고 훌륭한 인생이 됩니다. 오 늘 본분에도 비슷한 단어들(공홀,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 맛깔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노래나 드라마 영화에서 항상 사랑타령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지요. 참 사랑이 그리워서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식어 진 까닭은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이 진(秦)나라를 격파하고,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으로 입성하지요. 그런데, 궁궐은 호화스럽기가 그지없으며, 산처럼 금은보화들은 쌓여 있고, '후궁이 칠백 명이고, 첩이 삼백 명이라'(왕상11:3)고 하니 솔로몬왕보다도 후궁들이 많습니니다. 그런데 유방은 그 야방궁(阿房宮)

어(四字成語)가 바로 약법삼장(約法三章)입니다. 세 개만 두고 나머지 쓸데없는 법들은 모두 폐기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유방이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유방은 백성들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니다. 그러므로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2016년 한국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년에 13,092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고 지난 13년 동안 부동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사랑

“백인 복음주의 브랜드” 벗어나야 한다!

<2면에서 계속>
특히 주 1회 이상 예배를 드리는 비중은 히스패닉에서 30%, 아시아인 23.2%로 나타나 백인의 19.6%를 크게 앞질렀다. 이 통계를 정리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백인에서는 51%로 나타났지만 아시아인과 히스패닉 인구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한다. 흑인에서도 60%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10년 동안 복음주의는

백인 중심이라는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젊은 소수계 인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참석하며 복음주의 교회의 강력한 일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도의 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복음주의가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복음주의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크리스천의 연합은 최고의 성경적 가치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을 품으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바울의 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두 서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귀하다던 비유를 생각해 보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민족, 계급, 성별 같은 로마사회를 구분 짓던 관습들을 능가한다. 크리스천이라

는 사실 외에는 아무 표시도 필요 없다. 백인 복음주의로 부정적으로 브랜드한 복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인이라는 동질적, '카리'문화는 인종, 경제, 연령, 성별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분리한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 세대의 방법인 것이다(롬12:2).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우리 자녀들을 해치는 사악한 AB 624와 SB 24를 적극 반대하세요!

AB 624라는 법안은 공립학교 학생들 신분증에 낙태 대기업(Planned Parenthood) 단체의 연락처를 넣는 법안이며, SB 24라는 법안은 대학 캠퍼스에서 화학 및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인데, AB 624는 곧 최종투표가 있을 것이며 SB 24는 어제(5월1일) 통과되었습니다.

인의 신념을 지킬 자유가 빼앗깁니다. 12세-24세-12세라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까지 "a sexual or reproductive health hotline - 성(sexual)적인 문제 또는 임신문제 등의 핫라인" 이런 정도의 핫라인 번호를 가지고 다녀야 할 만큼의 상황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학교에서는 "Safe Sex 안전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보다 지금 12세 자녀들을 공격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린 아이들을 타겟(Target) 할 것인지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명은 Public university student health centers: abortion by medication techniques. 이 법안은 결론적 대학 캠퍼스 안에서 화학 약물사용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으로, 의학적으로 여성들 신체에 큰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며 정신적으로도 후유증이 큼니다.

AB 624 제출자 및 지지자: 제시 가브리엘(Jesse Gabriel, 민주당, 노스리지) 의원이 제출하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AB 624" 법안은 이미 캘리포니아 2개의 국회위원회(Assembly Committees)를 통과했고, 이제 곧 최종 통과를 위해 전체 80명으로 구성된 주의회(State Assembly)로 향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거듭 계속 증명되는 낙태에 대한 위험성들



꼭 알아야 할 것: Planned Parenthood(PP)는 이미 초등학교생들에게도 동성애, 성전환, 변태적인 성관계까지도 격려하고 (Free sex를 safe sex로 가르침) 그 결과물로 임신한 어린아이들에게 무분별한 낙태를 완전히 미화시켜 낙태를 격려하는 기업업은 수없이 검증된 상태이며 특별히 최근에 Abby Johnson이라는 PP에서 오랫동안 디렉터로 일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PP의 사악한 행위들을 폭로하며 "생명의 고귀함"을 보여주는 Unplanned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성장한 여성들마저도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낙태 과정들과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정치적으로 밀착다(Push)하는 것은 참으로 비도덕적이며 사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B 24 제출자 및 지지자들: 캘리포니아 남가주 온타리오와 치노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의원 Connie Leyva(커니 레이바, 민주당)이 제작하였고 민주당 전체가 지지하는 법안인데, 안타깝게도 5월 1일에 캘리포니아 Senate Health Committee에서 7:3의 투표로 통과되어 5월 13일 또 다른 공청회(hearing)가 있기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UC버클리대학교에서 "Students United for Reproductive Justice (SURJ)"라는 학생단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자녀들이 어떤 것을 학교에서 배우느냐, 세뇌되느냐에 따라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운동가들이 될 수 있고, 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정의 Justice"라고 잘못 알고 생명을 빼앗는 인권운동가들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AB 624의 치명적인 문제점들: Free Sex - 무분별한 성관계와 태아살인을 은연중 격려하는 교육과 정책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미성년자가 Planned Parenthood라는 낙태 대기업에 직접 전화를 걸게 함으로 자연스럽게 낙태만이 최선의 옵션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아간다-아직까지 사교 판단력이 부족하며 부모들의 가이드가 많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부모들의 인지나 동의 없이 낙태시술소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낙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 합니다. 피임 및 낙태 단체의 서비스 장려를 반대하는 학교들(대부분의 charter school)과 사립학교들까지도 공격하는 법안! 학교의 정책과 상관없이, 선생님들이나 학생 개인의 신념과 상관없이 이 법안은 모든 차터스쿨과 사립학교들에게 까지 이 법안이 적용되도록 제정하고 있기에 개

이미 무분별한 낙태실행과 태아 신체부분들까지 팔아 수많은 돈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 번 사실로 검증된 Planned Parenthood과 같은 기업의 전화번호가 우리 자녀들의 학생증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때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 번호로 버젓이 적혀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B 624는 곧 주 의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을 대표하는 주 의회 의원들에게 AB 624에 대해 NO를 투표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들에게 학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인지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SB 24이 다음세대의 건강에 주는 위험성: 이 법안은 대학교안에서 학생들이 임신했을 경우 학부모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리고 알릴필요도 없이, 학교 안에서 몸에 해로운 낙태약이 시술을 통해 학교안의 낙태를 허락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비윤리적이고 문란한 포르노수준의 성교육(K-12학년) 도 모자라서, 캘리포니아 반기독교 정치인들이 이제는 대학 안에 무분별한 낙태허용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인권도 학생권한 보호도, 사회 정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세대를 위해 강력히 영적 전투의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org에 가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B 24(College Student Right to Access Act - 대학생들의 권한보장법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서를 성경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몇백년 간 무섭게 핍박했는데 갑자기 기독교가 승인됐으며 나중에는 국교까지 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있어 새로운 지표를 긋는 사건이 4세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등장입니다. AD 305년 이래로 로마제국에는 네 사람의 권력자가 제국을 분점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는 리시니우스와 막시미누스다이어가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누스가 제국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누스는 처남 매부지간이었으나 이제 서방지역의 두 권력자가 권력 장악을 위한 접점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미 영국과 고을 지방에서 지지를 획득한 콘스탄티누스는 312년 10월 막센티누스를 제거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진군하였습니다.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으며 미트라라는 종교의 신봉자였습니다. 미트라라는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종교였고 군인들이 선호했던 종교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으로 기독교 박해 끝나...국교 승인은 데오도시우스

전투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 종교의식을 행하고 희생제물을 바쳤음에도 승리의 확신이 없던 콘스탄티누스는 예기치 못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정가였던 유세비우스(Eusebius)의 기록에 의하면 전투 전날밤 콘스탄티누스는 "이것으로 승리하라(In Hoc signo vinces)는 계시와 함께 십자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락탄 티우스(Lactantius)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상징을 병사들의 방패에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상을 따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상징을 "키"와 "로"를 겹쳐 보이는 문장(紋章)을 그린 깃발을 가지고 임전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칭하는 그리스어 크리스트스의 첫 두 문자인 키와 로를 겹쳐 쓴 것으로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음날 곧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는 로마 북쪽 테베레 강을 사이에 두고 막센티누스 군대와 접전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군사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고 막센티누스는 테베레 강을 건너 도망하다가 말비안 다리 아래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서방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4세였을 겁니다. 십자가의 환상과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콘스탄티누스는 미트라 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듬해 313년 1월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박해시절 압류되었던 재산은 반환되었고 다른 종교의 동일한 점적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주었습니다. 관료의 요직에 기독교인들을 임명하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유배되었거나 투옥되었던 지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현장에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새노래로 찬양하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이 지난 후 지난날의 무거운 짐을 벗고 광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한 사람은 379년 데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입니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5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부구 영우동 340-(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39-06-843-8676(교우관)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	새예언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8-3181~3, (82)2-2648-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1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치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8-45 www.esini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암동 415 www.yangok.org	양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원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서초구 이촌동 302-67 (140-031)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봉쿠(BUNGKU)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무슬림인 300개 이상의 독특한 집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시아의 남동쪽에 위치해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아 주요 대륙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

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17,400 봉쿠는 술라웨시 중심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툴라키와 모리에 가까운 이웃이다. 특별히 봉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는 그들의 가까운 이웃과 매우 비슷할 거라고 추측된다. 그들의 역사가 크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봉쿠는 거의 400년 동안 그들의 현재 위치를 유지해왔다고 믿는다. 봉쿠라고도 불리는 그들의 언어

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다.

삶의 모습

술라웨시는 약 3,500마일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섬이다. 주로 깊은 만으로 분리된 4개 반도로 이뤄졌는데, 남쪽으로 뻗은 2개와 북동쪽으로 뻗은 2개다. 섬의 남쪽 부분에는 술라웨시의 최고봉이 있는데, 롬포바탕산이라고 해발 9,419피트의 활동을 멈춘 화산이다. 이 지역의 기후가 열대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와 바다에 인접한 것으로 약간 완화됐다. 봉쿠에서는 스위덴스(화전 방식으로 깨끗해진 땅)에서 자란 옥수수가 주요 작물이다. 그러나 고구마, 사탕수수, 채소, 담배 그리고 커피가 또한 자란다. 개척지 사이에 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주 위에 세운다. 집들은 보통

풀을 짜서 만들고 매우 높은 지붕이 있다. 술라웨시에서 뚜렷한 사회 계급은 여전히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꽤 강경해 귀족의 상 위그룹, 하위그룹 그리고 서민들이다. 각 계급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습과 전통에 따라 각자의 행동규범이 있다. 구역은 전형적으로 마을의 세력권을 나타내며 마을의회가 운영한다. 그러나 의회가 모든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봉쿠의 결혼관습은 약혼을 할 때 신부 집에 지불해야 하고, 결혼할 때 다시 한다. 신부의 가격은 젊은 남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결혼 전에 남자는 그의 장차 처가식구들과 시험적인 기간을 갖도록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

요구는 높은 빈도의 가출을 유발시킨다. 과거에는 노예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함께 살 수 있었지만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신분의 여자들은 서민들과 결혼하지 않았다. 일부다처가 상류계급에서는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8백만 명의 이사의 농부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덜 개발된 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겐 정부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집과 다른 것들도 보조해준다.

힌두교가 넓게 퍼졌으나 지금은 단지 발리섬에서만 소수가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약 14%가 크리스천이고 주로 개신교도들이며 많은 중국인들은 불교-도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애니미즘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부족들이 믿고 있다. 봉쿠는 99.9%가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믿음은 여전히 중요하며 특별히 악령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 봉쿠 사이에 기독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봉쿠는 자신들의 언어로 기독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 그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없다. 성경과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다른 자료들이 매우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낙태 제한” 주 법개정안 줄줄이 통과

미국에서 낙태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973년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했지만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20여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가 통과되거나 논의되고 있다고 NBC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으로 바뀌자 아예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연방대법원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임신 24주까지는 여성의 의지와 선택으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시키지는 못해도 임신중절을 시행하는 병원에 지원금을 줄이거나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자금에 임신중절 수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낙태에 제한을 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들 주에서 임신중절 불법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주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올 들어 조지아·미시시피·오하이오·켄터키 주의회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반대로 표결이 연기되긴 했지만 앨라배마주 개정법안에는 성폭행·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상태에 대해 예외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규정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에 반대하는 기독교 우파인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대법관에 임명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NBC 등은 전했다.

다만 주연방법원이 이런 법안의 발효를 정지시키면서 실제로 발효된 법안은 없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 통과를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공화당과 낙태 반대 단체들이 사실상 낙태금지법을 만든 뒤 연방대법원에서 법의 효력을 따지는 과정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테리 콜린스 앨라배마주 하원의원은 최근 AP통신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엎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낙태 금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역시 낙태금지법에 부정적이다. ‘미투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조지아주가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직후인 지난 10일 트위터에 낙태금지법에 항의하는 ‘성파업(sex strike)’에 모든 여성이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비영리기관 구트마허 연구소는 NBC에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주 입법부에서 낙태금지법이 제정된 적은 없었다.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낙태 금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아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태아의 심

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7일 서명했다고 AP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미국의 6번째 주가 됐다. 캠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우리는 무고하고 취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변한다”며 “소중한 아기들이 자라서 그들의 완전한, 신이 부여한 잠재력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와 유사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된 미시시피주와 캔터키주, 오하이오주, 노스다코타주에서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금지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연방대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아 내년 재선 캠페인에 나서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공화당원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금지법을 강력히 비난했다. ACLU 조지아지부의 안드레아 영 대표는 AFP에 “이 법안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여성과 부부가 내리던 가장 사적인 결정을 불법화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가족계획연맹(PP·Planned Parenthood)의 남동부 지역 회장인 스테이시 폭스는 캠프 주지사를 향해 “우리는 당신을 법정에서 볼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예고했다고 AP는 전했다. 법원이 시행을 막지 않으면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지아주의 현행법은 임신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산모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경우,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신성모독 살해위협 아시아 비비, 캐나다로

신성모독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50·사진)가 캐나다로 탈출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비비의 5자녀는 앞서 캐나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는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웃 주민과 언쟁을 벌이던 중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2010년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갇혀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격분한 극단주의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며 일부는 살해 위협까지 했다. 파키스탄 정부도 강경 무슬림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비비의 출국을 금지하고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한발 물러나기도 했다.

비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게 당시 비비와 함께 있었던 주변 여성들의 증언이었다.

비비는 극단주의자들의 거듭된 살해 위협에 가족과 떨어진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시아 비비를 도왔던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는 “극단주의자의 비난과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기도과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행운을 빈다. 비비가 가족과 안전하게 재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스리랑카 테러 후 이슬람-티종교 갈등 고조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후 현지 이슬람교도와 다른 종교인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조직이 이번 테러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슬람 사회를 겨냥한 보복 공격 등 폭력이 빈발하는 분위기다.

13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도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칠라우 지역에서는 군중 수십명이 이슬람 사원(모스크)으로 몰려들어 돌을 던졌다. 일부 폭도는 이슬람교도를 폭행했고, 이슬람교도가 운영하는 상점도 마구 공격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군경은 실탄을 허공에 쏘며 대응에 나섰고,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현지에 통행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번 폭력사태는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이가 페이스북에 상대를 위협하는 글을 올리면서 비롯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 네티즌의 글에 격분했고 무슬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지 경찰은 관련 네티즌과 무슬림 상점 등을 공격한 폭도 일부를 체포했다. 아울러 당국은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 왓츠앱 등 소셜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단기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콜롬보 북쪽 네곰보 지역에서는 무슬림 주민과 불교를 믿는 상할라족 주민 간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당시 충돌 때도 SNS 접속을 일부 차단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의 불교도는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이어 힌두교(13%), 이슬람(10%), 기독교(7%) 순이다.

지난달 21일 스리랑카에서는 콜롬보의 고급 호텔과 주요 교회 등 8곳에서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 257명이 목숨을 잃었다. 테러 이후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가 배후

를 자처하고 나섰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의 배후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조직 NTJ(내셔널 타우히트 자마트)와 JMI(잠미야툴 밀라투 이브라힘)를 지목했다.

한편, 부활절 참사 후 추가 테러 가능성 때문에 중단됐던 콜롬보 시내의 천주교 미사가 12일부터 재개됐다. 폭롬보를 제외한 스리랑카 전국 대부분의 성당과 개신교 교회는 지난주부터 미사와 예배를 재개한 상태다. 테러 후 문을 닫았던 천주교 계열의 학교도 14일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북관계 수위조정 어려운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수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강은 양면 전술을 쓰는 것



같다는 긍정적 분석도 있지만, 갈팡질팡 ‘갈 지지’ 행보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것들은 단거리였다”면서 “나는 전혀 신뢰 위반(breach of trust)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 중 일부는 심지어 미사일이 아니었다”고 짚고 나갔다. 그러면서 “(북한이 쏜 것은) 단거리 미사일들이었으며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파장 축소를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신뢰 위반 여부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선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발사에 화가 났거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미 법무부는 북한 식탄을 불법 운송하는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사진)를 압류했다.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공을 펼치다가 하루 만에 유화적 스탠스로 되돌아온 것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1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단거리이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랑국가라고 불려온 북한이란 베네수엘라를 길들일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이들 국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들 3개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력있는 협상가도 아니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NYT는 꼬집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70개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NPT 준비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73. 강영승(1888-1987)

강영승은 1888년 8월 9일에 평안도 평양 박석굴에서 출생했다. 그는 부모를 따라 1905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노동이민을 갔다가 호놀룰루 한인영어학원을 졸업하고 1912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상항)에 안착했다. 그는 이듬해 상항 쿠퍼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해 12월에 본 청년회의 전도 국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듬해 4월에는 본회 회장이 되었고, 이듬해 3월에 개최한 계사회에서 강영승이 상항 교회 유사로 선정되었다. 당시 강영승과 황사선과 정인과는 권사로, 그 외에도 양주은, 홍 언, 김필권, 정영수 그리고 조병욱이 유사가 되었다.



강영승

강영승은 상항을 떠나 남가주의 클레몬트로 이주했다가 1915년 여름에 중가주의 다뉴바로 이동하였다. 그해 11월 그는 다뉴바 동포를 위하여 농사가 한가한 때에 13, 4명이 모인 가운데 영어 강습소를 개설하였고, 노동이 있는 날에는 야학(夜學)을 하고 노동이 없는 날에는 약학(藥學)을 아울러 가르쳤다.

1916년 7월과 8월에 강영승이 법률요령을 신한민보에 기고했는데 시카고의 하밀톤 법률대학의 통신교수생으로 소개되었다. 이듬해 본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했을 때 국민회나 성 지망회가 개최한 한인 학생 졸업식 축하회에서 그가 전한 아래의 답사를 통해 그를 좀더 알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옵서 사분의 사랑과 공체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같이 모여 축하하시니 감사함을 말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이 모인 까닭을 깊이 생각하면 세계사회의적인 자결과 동족적 정의와 천국의 동일한 백성된 연유에 벗어나지 않을 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축하하시고 나도 또한 감히 받는 바이이다. 나의 오늘 졸업은 그 과학에 대한 처음 걸음으로 관심을 가져 더욱 연구코자 하나니 곧 법학의 원리, 인생 생활의 진리라. 이 불평부정

한 사회가 공평 정직되기까지 욕망이지만 우리 민족 사회의 공평 정직이 관일치 않으면 소망을 이루지 못할바 나는 여기에 대하여 더욱 힘쓰려 하노라.

강영승은 1917년 여름에 장리옥과 임 초와 함께 클레몬트 학생양성소에서 문을 연 유년 하기 국어강습소의 교사로 활동했고, 이듬해 1월에는 위의 장소에서 10여 명의 신도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습소를 개교하였다.

강영승이 위의 시카고 법률대학에서 석사에 이어 '증거를 세우는 새 규칙'이라는 논문으로 1920년 7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연설을 그해 8월 중가주 맥스웰에서 듣는다. 그달 8일 저녁에 맥스웰 부근 각 농장의 한인 60여 명이 타운홀에서 그가 한 시간 50분간 연설한 '공화민국의 자격'을 듣고 쇠락한 흥분을 헤치고 우리 민족 백성의 절대 필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해 11월 한송과 최능익, 김창민, 신영철 그리고 조율림이 발기인이 되어 다뉴바에서 4, 5삭 동안 강영승을 초빙하고 영어숙성과를 개교하였다.

강영승은 1921년 3월 상항에서 있는 독립경축회에서 '오늘'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1919년 3월 1일은 인생

의 용감을 처음 보인 날이고, 선언서에 서명한 여러분은 위대하고 정당한 우리 독립의 영웅들이며, 오늘은 전사 영웅의 제사날이고, 이날에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더욱 극진히 할 것이며, 국가 독립은 한인의 독립 자유에 있음을 알고, 권리보다 정의를 먼저 할 것이며, 사람마다 천직을 이행할 것이고, 싸워서 다음날 용감으로 전진할 것을 역설했다. 그해 그는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이 된다.

전도사

1928년 9월 3일 오후 2시에 상항 부셔 스트리트 백인교회당에서 샘 해이 감독의 사회로 개최한 미국 남감리교 동양인 교회 구역대회에서 황사용과 함께 강영승은 상항 한인감리교회 전도인으로 선임되었다. 본 교회 담임이었던 이대위 목사가 그해 6월 17일 소천함에 따라 황사선 목사는 담임이 되었다. 이해 본 교회의 주소는 옥 스트리트 1053번지였고, 전화번호는 7041번이었다. 10월에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김삼돈을 청하여 약 한 시간 반 동안 '방탕하던 자식의 회개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설교를 듣고 일반 교인들이 많이 감동했다.

11월에 본 교회에서 개최한 계사회에서 데이비스 목사를 초청하여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는 자'라는 제목

로 사서 가지고 오시옵소서.' 본 교회 임원 일동이 위의 광고와 함께 "웃 벗은 동포에게 웃을, 털털 떨고 있는 이를 생각"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함경남도 동포를 위하여 "겉옷이나 속옷이나 어른의 것이나 아이의 것을 무튼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전으로 도맡게 하심을 바라나이다"고 알렸다.

그해 12월에 정남수 목사를 모신 세 번에 걸친 집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신앙심이 다시 돈독해졌고, 그가 성탄 축하식에도 초청되어 큰 은혜를 끼쳤다. 그는 한인 종교계에 빌리 썬데일로 미국인 교회에 명성이 자자한 자였다고 한다.

1929년 중가주 리들리 교회의 아동가극대가 상항을 방문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두 달 후인 5월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김춘하의 부인이 귀국하였고, 이순복은 서양 식당을 개업하였고, 낙상 후 비관하여 배를 찢러 이선범이 자살하였고, 이천용과 마에나가 이혼을 하였고, 황사용 목사 사모가 수술하였고, 이응묵의 부인 이신환이 사망하였고, 박창순의 부인 박애나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러나 6월과 7월에는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영적 잔치가 있었다. 6월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윤하영 목사를 모셨고, 7월에는 예일 대학에서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소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여 한 가정의 탄생했으나 류태경이 환국하고 최웅선은 나성으로 이주하여 섬섬함을 금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상항 예배당 건축을 위한 재정위원회가 조직되어 한인사회에 큰 관심을 이끌었다. 상항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스탠포드, 새크라멘토, 리들리 등에 재정 모집위원을 두었고, 서기에 양재현을, 재무에 백일규를 선임했다.

상항 한인감리교회

2월에는 상항 어린 학생회가 나서서 동회 회장 문덕소 이하 남부 학생들이 본 월 13일 저녁 한 끼를 단식하고 고국에서 철창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학우들에게 동정을 표했다. 그해 3월 남감리교회 지방회 보고에 따르면 상항 한인교회의 재정은 84명이었고 출석은 45명이었다고, 5명의 세례교인이 추가되었고 헌금은 805달러에 달했다. 이날 강영승은 품행을 통과하고 전도사 직책을 계속하게 되고, 양주은이 새로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상항 예배당을 준공하고 6월 1일 하오 2시에 상항 시내에 계신 동포는 물론 부근에 계시는 모두를 초청한 가운데 낙성 예배를 드렸다. 헌금 총액은 1160달러로 25센터였고 7달러 51센터를 남기고 지출했다. 지출 항목에는 예배당 의자, 강대상, 강대의자, 주일학교 의자, 사무실 책상, 난로 카펫, 문밖 방석, 찬미가, 미국기, 성찬기, 연조 기명, 방바닥 질, 순반비, 인쇄비, 통신 및 문방구비, 잡비 등이 있었다. 7월에는 상항 교회가 한인들의 우체국이 되기를 자청하여 새 예배당 주소를 통신 번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했다: "금후 본 교회에 관한 모든 통신은 이하 번지로 하시면 지체없이 신속 배달되겠습니다. 황사선



상항 한인감리교회

목사. 메이슨 스트리트 1321번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강영승은 2년간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강영승은 나성의 할리우드에서 30년간 한방원을 경영하면서 '동양의학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영문서적을 발간했다. 그는 1987년에 작고했으나 향년 99세였다. 2016년, 한국 정부는 강영승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듬해 그의 어머니 황마리아에게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damian.sohn@gmail.com

1928년 상항 한인감리교회 전도인으로 임명 시카고법률대 박사학위 취득... 독립운동 매진

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 비슷하게 만드셨으므로 이 우주 간에 오직 사람이 모든 역경을 정복하고 인류의 문명을 향상하는 동시에 사람의 신령적, 도덕적 발전이 향상되고 사람이 착한 만큼 악하므로 착한 자는 하나님께서 더 착하게 하며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날 본 교회 임원을 선임하였는데 권사에 하상옥과 강천명, 유사에 신경애와 장인환과 강천명, 평신도인 도원애 양주은, 주일학교 교감애 양재현, 그리고 영빛 청년회 회장에 하명원이었다. 그해 11월에 상항에 심한 유행성감기가 도는 가운데 이날 22일 신한민보에 추수감사절 경축고사가 나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 감사절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말씀을 느껴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이 날에 우리 일반 교우들은 가득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순서 중에 아름다운 풍악과 감동할 만한 설교가 있습니다. 시간은 당일(금일 29일) 하오 8시 정각이후 여러분께서 공수로 오시기 섬섬하시거든 좋은 과일이

귀국하는 김영희 박사를 모셨고, 김박사는 웹트 청년회에서도 초대를 받았다.

1929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상항 버클리 윌렛 남감리교회당 응접실에서 샘 해이 감독의 주관으로 모인 미국 남감리 연회에서 강영승이 상항 교회의 전도사로 선임되고, 본 교회 담임 황사선 목사도 선임된다. 이날 주일학교 공과는 만국 주일학교 동일 공과를 쓰기로 하고, 국어학교 교과서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된 대로 상항 한인교회의 출석 교인은 81명이었다.

10월에 개최한 계사회는 상항 교회의 임원을 선정했다. 권사에 하상옥과 최우실, 속장에 양재현, 유사에 장인환, 신경애, 황재건, 평신도대표에 양주은 그리고 주일학교 총무에 조웅철이었다. 11월 추수감사절에서는 상항 장로교 신학생 조웅철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설교를 하였고, 몇 분의 감사담이 있어 감사의 마음이 한층 더 했다. 그해 성탄절에서는 내지 동포 구휼금을 거두어 30달러를 조국으로 보냈다.

1930년 새해 1월에 상항에 다닌 거류하던 박승규와 전진주가 고등 재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www.youngnak.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독성(금): 오전 5:30 3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영어예배: 오후 7:30 금요일양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전 1:20 젊은이(장소:KDC, 킹덤드림센터) 사별기도: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dnc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통)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pl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일영어예배: 오후 7:30 Tel: (213)745-9191(CH), 사별(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얼빈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일영어예배: 오후 7:30 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영어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가지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영어예배: 오후 7:30 성경대강좌: 오후 5:30(월-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9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www.torrancec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필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리더십 코멘터리 (86)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시대는 서번트 리더를 요구한다

서번트 리더십은 유혹을 극복하는 해결책

리더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도록 비전, 방향 제시, 자원을 제공할 때 서번트가 된다. 또한 리더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비시키고 그들과 팀을 이루면서 봉사해야 한다. 최근 서번트 리더십이 교회보다는 오히려 기업에서 더 강조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서번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 리더십의 모델이고 교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모델(Model for Life)이 되어야 한다.

리더의 사명은 의사결정과 집중된 행동에 있다.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은 자신의

의 소유자는 구성원들의 숨은 잠재력을 발굴해서 가장 적절한 업무를 적절한 시기에 맡겨서 원하는 결과와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보여 주셨던 서번트 리더십을 진정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표현하려면 행함과 마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본이 되는 참된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는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가 되는 것이다. 영적리더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경청하는 것이며, 그 분과 교제하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은 삶의 모델 겸손, 희생적 섬김, 이타심, 사랑은 성경적 원리

관심사보다는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시작된다. 서번트 리더는 그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서번트 리더는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자 동시에 섬기는 사람이다. 영적리더는 오만함을 버리고 리더십을 통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영적리더는 주님께 순종하는 섬김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현대사회 속에서 영적리더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유혹은 '현실적이 되라는 유혹, 인기를 얻으라는 유혹 그리고 권력이 최고라는 유혹'이다. 인간적인 유혹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세로 임하는 서번트 리더십이야말로 유혹을 극복하는 해결책이다.

말씀연구, 기도생활과 같은 영적생활과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성 유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서번트 리더십이 생활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서번트 리더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

올바른 리더는 행함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탁월한 리더는 조직과 공동체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일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또한 탁월한 리더십

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채움을 받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데 이것을 명예욕 또는 권력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며,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이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만이 종이 될 수 있다.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종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영적리더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리더가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말씀 속에 현대인과 리더를 향한 리더십의 이론들이 많이 등장한다. 마태복음 20장 25-28절과 요한복음 13장 1-17절에 보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잘 나와 있다. 그렇다면 영적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원리는 무엇일까?

①겸손한 리더가 되라. 리더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자만이다. 우리 주변에 자

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다. 자만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되어 사람들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주님께서 권력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서 거만하게 군림하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꾸짖으셨다.

②희생으로 섬기는 리더가 되라. 리더는 사역 현장에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 쉽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이건,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의지이건 간에 리더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 쉽다. 주님께서 리더의 본분은 섬김이지 신분 유지가 아님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자신이 제자들 앞에서 실제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③남을 이롭게 하는 리더가 되라. 많은 리더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계산한다.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마치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다.

④사랑하는 리더가 되라.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하지 않을 때, 겹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겸손, 희생으로 섬김, 이타심, 사랑 이 네 가지 자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으로 섬기기 어렵고, 희생으로 섬기지 않는 자가 이타심을 가지기 어렵고, 이타심을 갖지 않은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 반대로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된 이타심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으로 섬길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5).

지금은 섬김의 때

서번트와 리더는 상반된 단어이다. 그런데 상반된 두 단어가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해서 역설적인 개념을 낳은 것이 서번트 리더이다. 서번트 리더의 진정한 특징은 먼저 섬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방법론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 글을 읽는 리더 모두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려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열매숙기

우리 성도님들,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뒤뜰 한켠에 텃밭을 만들어 여름 내내 싱싱한 야채를 따 드신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문을 들어서실 때면 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들고 오신다. 애들을 쓰신다. 같이 나누어 드시고 싶으신 거다.

어떤 집사님은 텃밭만 전체를 밭으로 만드시고 얼마나 잘 가꾸시는지 그 밭에서 난 식물들은 마치 가나안 산처럼 크고 많았다. 이유인즉,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하신단다. 흙 관리를 위해 영양분을 더하고 그것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위에 잡초들을 잘 제거해주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 그리고 결실을 기대하는 열매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시들은 열매들은 빨리 뽑아주면 영양분의 분산을 막을 수 있다. 일명 '열매숙기'이다.

그렇다. 우리 삶속에서도 어쩌면 이런 열매숙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내 인생에 가장 실한 열매가 맺힐까? 먼저는 나날이 고집스럽게 움켜쥐려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속아주어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져가는 몸과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움켜쥐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오곤 한다. 또한 누군가와 조금만 관계가 서원해져도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주변의 어지러움과 혼돈된 마음들을 계속해서 속아주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양심이 사라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깨진 관계들 속에서 생긴 가슴속 응어리들을 계속 속아내야 열매 비슷한 것이라도 맺히지 않을까.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을 때 진짜 사는 힘이 한데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우리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으며 이런 내가 좋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리라. 그러면 삶에 대해 아무런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이 아침마다 생각 없이 눈을 떠서 일상에 대한 새로운 고마움이 더해지리라.

우리는 때로는 책을 잘못 고르듯이, 의사가 오진을 하듯이 상대의 마음도 잘못 진단하여 맘이 상할 때도 또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본심이 아니었던 것들은 빨리 속아주고 마땅드려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용기 있는 말을 더해 버리면 우리 인생도 모세처럼 열매숙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가지 않을까.

시절을 잘못 만나, 사람을 잘못 만나, 일을 잘못 만나, 몸이 아파서... 이렇게 맞고 사는 마음을 빨리 다 속아주고 죽음을 넘는 살림의 삶으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서 복음이 결론이 되는 삶을 가까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망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 (718) 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 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라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주일 낮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Fax: 장흥),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남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청년남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사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 556-76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신교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Tel: (52) 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p>



목회서신

‘너무나 그리운 어머니!’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5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고 너무나 어머니가 그리워 집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마음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엔 우리 어머니가 고령이셔도 살아 계셨고 위태로웠지만 행복한 어머니 주일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어머니 생전에 마지막 어머니 주일을 지내고, 올해는 어머니가 안 계신 어머니 주일을 지키자니 이 아들의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감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저만의 감정이 아닌 어머니를

리한 모든 자녀 된 이들의 아픔이요 그리움이요 후회스러워 하는 애처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 정철 선생의 충효가가 5월이면 주가를 발휘하고 우리에게 더 가깝고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버이 살아 실제 섬김일량 잘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강오륜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동양도덕 윤리의 강령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불변하는 인생

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삼강에선 임금과 신하의 관계(군위신강)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위신강) 부모와 자식의 관계(부위자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곧 국가에서 국민으로서의 생활의 중요하고 가정에서 가족으로서의 생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륜에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군신유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부부유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부자유친) 어른과 젊은이의 관계(장유유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붕우유신)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중

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시128:1).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반드시 효도하고 효도를 받는 효도하는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 불신의 차이를 효도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는 믿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효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신5:16).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6:1-2).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겐 세상의 전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늙어지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짐이 되는 부모님의 짐을 달게 지고 그 효도의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축복의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개혁자 루터가 주장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는 지금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가? 1)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2)효도생활을 통하여 훈련 받고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3)마땅히 행하여할 일이기 때

문입니다. 4)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가는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존재자들이지만 말입니다. 아직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곁에 계시는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효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의 부모님 곧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시어머니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 뒤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9년 어머니 주일을 지내면서 내 곁을 멀리 떠나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머니 없는 아들로서의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저의 마음을 목회서신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그리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주 안에서 서라 하나됨, 개혁, 도약’ 주제 제 27회 기감 미주자치연회, 17개 감리사 선출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제 27회 미주자치연회가 ‘주 안에서 서라(빌4:1) 하나됨, 개혁, 도약’을 주제로 7일과 8일 양일간 나성동산교회(이경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주 안에서 서라 하나됨, 개혁, 도약’ 주제 제27회 기감 미주자치연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정인호 감리사의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설교했으며 은희곤 감독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성찬식에 김중현 감독(중앙연회), 김학중 감독(경기연회), 박효성 집전 감독(미주자치연회)이 미주자치연회 감리사들과 함께 성찬을 집례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은희곤 감독의 사회로 본회의가 개최돼 미주자치연회의 회무가 시작됐다. 미주자치연회는 첫 날 공천위원회보고, 각 지방 감리사보고 및 교역자 품행통과, 준회원 허입식, 각종 보고, 세미나(김학중 목사-“이 시대의 영성”, 도상원 UMC감리사-“이민교회의 오늘의 진단과 내일의 전망”), 분과위원회, 은퇴찬양예배, 별세회원 추도식을 가졌고 둘째 날 감리사선거, 표창식, 목사안수식 등을 거행했다.

연회가 개최된 나성동산교회는 교단을 탈퇴했으나 미주자치연회와 새로 부임한 이경환 목사의 수고로 법정소송을 제기해 교회를 되찾았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개회예배 중에 이경환 목사에게 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가 결의한 금일봉을 전달해 격려했다. 은희곤 감독은 “나성동산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이 교회에서 연회를 개최했다”며 “그동안 우리에게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돼 미주자치연회의 개혁과 도약에 전념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리라 믿는다”고 천명했다.

은희곤 감독은 미주자치법의 영문판 발행안내, 미주감신 졸업자의 한국내 목회허용 입법추진, 선교사 파송이 가능한 미주선교훈련원 개소, 미주자치연회 선거법개정, 2교구제, 타교단 파송, 한미목회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통일위원회, 미국교회협의회(NCCA)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

다. 둘째 날 회무는 분과위원회 보고로 시작됐다. 그리고 19개 지방의 감리사 선거가 있었는데 △남가주남 이재삼 △남가주동 정인호 △남가주북 지성은 △남가주서 신광섭 △뉴욕 동 이선구 △뉴욕서 민경용 △뉴잉글랜드 이준호 △동남부 정찬의 △멕시코 박승기 △샌프란시스코-시애틀 현진광 △시카고동 한철희 △시카고서 조익성 △오렌지 임영호 △워싱턴 김성도 △중남부 최진호 △캐나다동부 남궁권 △캐나다서 김병태 목사가 각각 선출돼 은희곤 감독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하지만 미서북부와 중부동 2개 지방은 감리사가 선출되지 못했다. 이 외 이임하는 감리사들이 공로패를 받았고 성역30주년 목회자들과 연회준비에 수고한 이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정직6개월에 처해졌던 한 회원이 장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복권됐다.

또한 이후근 목사를 명예감독으로 예우하기로 결의했다. 이후근 목사는 2010년 미주특별연회 2대 감독으로 선출됐으나 미주 내 갈등으로 인한 소송정국의 와중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당선이 무효됐다. 예우안이 통과되자 은퇴한 이후근 목사의 후임인 윈즈교회 이철윤 목사가 발언을 자청해 “연회의 따뜻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한편 미주자치연회는 연회기간에 미주자치연회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 사무실은 연회가 개최된 나성동산교회 내에 마련됐다. 동시에 유지재단 현판식도 함께 있었다. 올해 초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미주현지법인’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은희곤 감독은 유지재단의 미주현지법인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5월 21일 예정된 유지재단이사회에서 현지법인으로

승인되면 미주연회의 재산이라도 본부 유지재단의 관련법규를 적용받게 돼 교회재산을 공격으로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주자치연회는 제27회 연회를 폐회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제 26회 실행부위원회가 제안하고 제27회 연회원 일동으로 발표된 ‘제27회 미주자치연회 LA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연회는 “1993년 연회가 시작된 이래 발전을 거듭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고 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제27회 미주자치연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개혁과 도약에 전념할 때,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에 새살이 다시 돋게 됨을 믿는다’며 회개 일치 준수 개혁 선명 평화통일 등 6개 부분에서 미주자치연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박준호 기자)

“아버이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 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 성황리에 열려

KCBC기독교방송(대표 한기형 목사)과 우리방송(대표 김흥수)이 공동주최한 제 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기형 대표는 “올해 처음 효도잔치를 열었는데 KCBC 기독교방송이 해마다 효도잔치를 열려고 한다”며 “아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운동이 기독교문화운동으로 정착이 돼 많은 가정과 교회들에게 섬김의 정신이 체질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목사와 어머니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된 제 1회 효도잔치는 박성근 목사(남가주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감사예배 및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84,650.48달러 모금, 1억원이상 전달예상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 감사예배 및 보고회

지난 달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700여 명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결성된 강원재난피해 미주 연합후원회(대회장 한기형 목사) 감사예배 및 보고회가 8일 오전 11시 은혜한인교회(한기형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이날 추진위원장 이병만 장로는 경과보고에서 “4주 동안 실시된 강원도 돕기 모금운동을 통해 교계와 일반단체가 하나가 됐다”고 말하고 “모금운동을 실시하기 전 많은 분들을 통해 투명성 보장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모금운동을 실시했을 때 투명성 문제로 이 어진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강원도재난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실시된 이번 모금운동에서 활동비는 모금액과 별개로 함께 뛰어다니는 분들이 각축해서 조달했으며 모금된 금액은 전액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계를 맡은 최대용 장로는 “9일 오전 9시 현재 \$81,550.48이 모금됐으며 미주연합후원회 감사예배 전 영감 전 거주하원의원, 연목회, 총선선교교회, 남가주교회총무단, 크리스천헤럴드, 오렌지카운티 전도회연합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굿네이버스가 주최로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강사로 나선 하형록 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동사로 꾸는 꿈을 꾸라...”

굿네이버스 주최 토크콘서트, 강사 하형록 회장

굿네이버스 주최 토크콘서트가 11일 오후 6시 더소스몰에서 열렸다. ‘꿈과 행복을 이루는 길’이란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세계적인 주차전문설계회사 팀 하스의 하형록 회장이 강사로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 나누었다.

하형록 회장은 “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며 꿈을 어떻게 키워나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며 “자녀들이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꿈은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라 질문을 한 뒤 “꿈은 명사로 꾸기보다는 동사로 꾸어야 한다”며 “의사 변호사 등 명사의 꿈은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이루지 못할 때 상실감이 빠져버린다.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는 명사의 꿈을 이루지 못한 상실감이 작용해서다. 동사로 꾸는 꿈의 경우, 예를 들면 변호사의 경우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직종인데 실령 변호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남을 돕는 직업이 다양하기에 타 직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꿈에 비추는 직종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웃으로 인해 내가 올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참 행복과 축복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KCBC기독교방송과 우리방송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인커뮤니티 효도잔치가 성황리에 열렸다

동부교계 게시판



2019 영생장학생 선발공고

영생장학회(YSPC Scholarship Foundation)가 2019 영생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접수는 6월 1일까지이며 시상식은 8월 7일이다. 장학금 종류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동부개혁신학교 △영생 다음세대지도자 △영생 일반 △영생디모데 △영생교인 신학생 장학금이다. 온라인(www.yspcscholarship.org)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info@yspcscholarship.org

아이티 고아들 위한 청소년 구호팀 모집

더코너 인터내셔널(대표 조항석 목사)이 8월 아이티 고아들을 위한 청소년 구호팀을 모집한다. 아이티 포토프린스 인근 10개 고아원 4백명의 고아들을 위해 음악회, 체육회를 열고, 식량과 의약품, 학용품 공급 등을 하게 된다. 기간은 8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5박6일. 참가대상은 고등학교 9학년이상(현재) 및 대학재학생으로 참가학생들에게는 대통령봉사상 및 리더십 상이 수여되고 9월 학기에 12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참가비는 항공료(678달러)+500달러=총1,178달러. 신청마감은 5월 20일이며 6월 15일(토)부터 8주간(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훈련한다.

▲문의: (201)446-4466

소프라노 솔리스트 초빙

뉴욕 배이스айд장교회(이종식 목사)가 여성 소프라노 솔리스트를 초빙한다.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 성악 전공자이며 구비 서류는 이력서와 신앙 고백문이나 간증문. 제출기간은 5월 31일까지.

▲문의: iambmcguy@gmail.com 신두현 행정목사



제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위한 뉴욕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복음으로 진정한 통일 이루자”

제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위한 뉴욕기도회

제 13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뉴욕기도회가 지난 10일 오전 8시 플라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평화통일기독교위원회가 주관하고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와 뉴욕교협이 후원했다.

기도회는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사회로 미기총 사무총장 이재덕 목사의 내빈소개, 세기총 공동회장(준비위원장) 이종명 목사의 환영사,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의 대회사 후 예배가 시작됐다.

이종명 준비위원장은 “1천만 이산가족의 뜨거운 만남과 민족이 염원 통일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고 환영사를 전했다.

최낙신 대표회장은 “우리의 계획이나 행사는 정치인들이 방법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로 행할 때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하자”고 대회사를 했다.

6년 전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는 오는 12일 필라에서 14차, 15차는 6월 인천에서, 16차는 미얀마에서 열리게 된다. 올해 안으로 10-20개국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설교는 세기총 상임회장 윤보환 감독이 맡았다. 윤 감독은 “진정한 통일, 시온이름”(겔37:15-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개인적으로 남북과 동북삼성 등 3개 지역의 복음통일을 기도해왔다”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일으킨 하나님께서 담우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약속하셨듯이 대한민국 통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 뉴욕의 한인기독교인들이 1)거룩한 중재자가 되고 2)시온이름으로 기도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한다. 지난해 법고단적으로 광화문에서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했다. 3)거룩한 성

령의 복음통일”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제안으로 남북이 서로 대사를 파견하는 순차적 행보를 언급했다.

이날 대표기도 김영환 목사, 성경봉독 이창종 목사, 찬양 이광선 집사, 설교 윤보환 감독, 헌금기도 권캐더린 목사, 특별기도 정여균 목사(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연규 목사(뉴욕의 복음화와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박진하 목사(월빛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전희수 목사(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격려사 장석진 목사, 축사 정순원 목사, 감사장 전달(이종명 준비위원장에), 광고 신광수 목사, 통일의 노래, 축도 박희소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세기총 필라델피아기도회(14차)는 5월 12일 오후 5시 살롬은무교회에서 열려 세기총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가 설교했다(“한반도 평화통일과 성경적 해법”, 눅10:30-35).

필라 기도회 모임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및 Mission group Centum Inc 대구센터의 후원과 필라원로목사회, 필라교회협의회, 필라목사회, 필라장로회, 필라에국동지회, Penns기도동지회, Korea Recovery Coaltoon의 협찬으로 이뤄졌다.

(유원정 기자)



이보교 2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심포지엄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 헌신, 순종으로 성결한 삶 이루라”

뉴욕교협 ‘2019 성령화 대성회’ 강사 윤보환 감독

뉴욕교협이 주최한 ‘2019 성령화 대성회’가 5월 10일부터 사흘간 걸쳐 윤보환 목사를 강사로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됐다.

45회기 뉴욕교협의 표어인 “성결한 삶”을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윤보환 목사(기감 감독, 영광교회)는 “기도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이란 제목으로 사흘저녁 집회를 인도했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뉴욕교협 사상 처음으로 여는 성령화 대성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며 강사 윤보환 감독을 소개하고 집회 때마다 “성결한 삶”을 구호로 외쳤다.

첫날 저녁 윤보환 목사는 “기도의 삶”(창4:25-2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며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한 사람의 역사였다.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에서 선수들이 배구경기를 펼치고 있다.

종합우승 뉴욕, 준우승 버지니아

제 13회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제 13회 미동부 5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가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메릴랜드에 있는 웨스턴 리저널 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메릴랜드목사회가 주최하고 5개주에서 2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윤종만 목사(메릴랜드 회장) 인도로 대표기도 김영환 목사, 설교 김엘리아 목사(대회장), 광고 최정규 목사(제1부회장), 축도 박태규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체육대회는 오전 중에도 박종희 목사(총신행위위원장)의 경기진행으로 진행됐다. 대회장의 개회선언 후, 축구팀 이재성 목사의 선수선서, 윤종만 목사의 환영사, 박종희 목사(메릴랜드 전회장)의 경기안내, 김중윤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의 중식기도로 진행됐다.

메릴랜드 목사회는 경기 중



뉴욕교협이 주최한 ‘2019 성령화 대성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강사와 준비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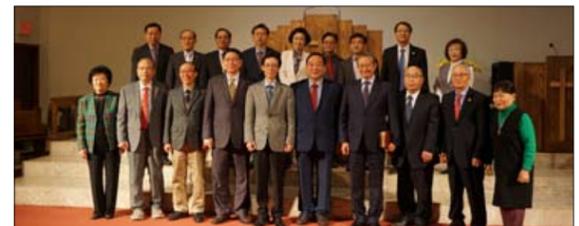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첫째,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 내 속에 열정이 있어야 하며 주 여호와와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야 하며 그러면 교회가 절로 부흥한다”고 역설했다.

또 “에노스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에노스는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벨의 계보를 잇

는 예배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며 “에녹(동행), 노아(헌신), 스테판(상급)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 윤보환 목사는 “순종의 삶”(마1:1-6)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회복됐는데 마지막 예언 사역이 회복돼야 한다. 신앙적 예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순종했던 한나와 그렇지 못한 수벳 여인을 비교하며 “기도제목은 분명히



뉴욕교협 3차 임신행위 및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 삼으라”

뉴욕교협 3차 임신행위 및 할렐루야대회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퀸즈장로교회에서 3차 임신행위위원회 및 2019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12일까지 사흘간 열린 성령화대성회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지만 무사히 잘 마친 은혜의 잔치가 됐다”며 “곧이어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기도 권캐더린 목사, 설교 이용걸 목사, 합심통성기도 박준열 목사(2019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오명희 목사(중국 대한민국과 미국과 뉴욕교계를 위해), 광고 이창종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교회 원로)는 “마음의 주인”(엡6

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서원기도 하라” 등 기도응답의 비밀을 설명했다.

윤 목사는 “순종의 삶이 사명의 삶”이라며 “사명은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이다. 순종의 삶으로 성결을 이루라”고 말했다.

집회는 인도는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 부회장 양민석 목사,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사가 했으며, 기도는 조원태 목사, 최예식 목사, 유상열 목사가, 헌금기도는 심화자 목사, 김기호 목사, 김영호 장로가, 축도는 허연행 목사, 김재권 목사, 김영식 목사가 각각 맡았다.

또 프라미스교회, 뉴욕순복음연합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프라미스교회 성가대, 뉴욕밀알선교합창단, 기독교여성선교합창단이 찬양을, 헌금송은 프라미스교회 삼중창단, 밀알기악양상부, 오키나와연주(김사라 목사/신레베카 전도사), 유진웅 교수, 배정호 집사 등이 맡았다.

(유원정 기자)

환자 발생을 대비해 의사를 대기시켰으며, 점심으로 도시락을 준비했다.

경기는 축구, 배구, 족구, 릴레이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각 종목 1등 100점, 2등 80점, 3등 60점, 4등 40점, 5등 20점으로 정하고 응원 10점, 마지막 남은 인원수 10점, 매너 및 배려 10점 등도 추가했다. 릴레이는 30대에서 60대까지 각 1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됐다.

40여명이 참가한 뉴욕목사회는 축구, 족구, 릴레이 등 3종목에서 1등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버지니아 목사회. 뉴저지 목사회는 축구 3등, 배구 4등, 족구 2등을 기록했다.

모든 순서는 문정주 목사(버지니아 회장) 폐회기도로 마쳤다. 제14회 2020년 연합체육대회는 뉴저지에서 열린다.

(기사제공: 메릴랜드목사회)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 주제

이보교 2주년 감사예배 및 제3회 심포지엄

이민자보호교회(이하 이보교) 2주년 감사예배 및 제 3회 심포지엄이 5월 9일 오후 6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보교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추방위기에 몰려있는 이민자들에게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에서 2년전 시작됐다.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 케네디교회협의회 협찬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복지교회와 정부보조 수혜자”다.

이보교 TF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미국내에서 이민자보호

교회를 연합으로 하는 곳은 뉴욕뿐이며 소수민족 중에서는 한인교회뿐”이라고 설명하고 “지난 2년 동안 각 지역에 수감된 서류미비 동포들을 방문 위로하고 다카드리머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해왔다”며 “이보교가 노아방주 생명선으로 사회와 교회의 오작교가 되도록 이번 심포지움 주제로 복지교회 비전을 세웠다. 돌봄과 나눔의 가치로 용기를 얻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저녁식사 후 드린 1부 예배는 홍인석 목사(뉴저지교협회장) 인도로 기도 이은수 목사(뉴욕교협 총무), 성경봉독 박창완 장로(한울림교회), 특송 조아를 합창단, 설교 윤명호 목사(뉴저지이보교 TF위원장), 헌금찬양 뉴욕/뉴저지/케네디 컷 이보교TF임원단, 헌금기도 이용보 목사(뉴욕한인교회), 축도 이정찬 목사(케네디컷교회 협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윤명호 목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삼하21: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윗시

대의 기근은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차별하며 죽인 이유로 생겼다. 기브온 거민의 일은 역사 속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근을 통해 알게 하셨다”며 “이보교의 정신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교회가 피난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기근 이후 기브온 족속은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흡수된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소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이보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심포지엄에 앞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린군 뉴욕주 하원의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는 김진우 목사 진행으로 조원태 목사의 환영인사 후 △복지교회의 성서적 의미/김원재 목사 △복지교회의 사회적 의미/김동찬 대표 △복지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차현화 사회복지사 △주택과련 퇴거소송 및 관련 법/토마스리 변권자 △정부보조 수혜자 영구권자 시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조문경 변호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3:14-19)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것이 신학교 표어였다”며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창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사탄에 잡혀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며 “특히 설교자의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청중들이 은혜를 받는다. 항상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기도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역과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의는 정순원 회장 사회로 김재권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준비위원장이 개회기도 하고 회원점명,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김재권 준비위원장은 “할렐루야대회 준비에 힘을 합쳐 열심히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도, 물질, 시간으로 섬겨달라고 인사했다.

정순원 목사는 “2019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역시 45회기 교협 표어와 동일한 ‘성결한 삶’을 주제로 삼았으며 말씀중심의 대회로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터와 전단지까지 한국에서 제작돼 운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보고는 김영철 목사가 했으며, 회계보고는 회계 박정오 목사가 한국출타 중이므로 귀환 후 이메일로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감사보고 결과 현재 잔액은 26,396달러, 부활절연합세벽예배 헌금은 20,404달러, 신유집회 잔액은 4,934달러로 보고됐다.

장소와 오찬을 대접한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는 “연합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한다”며 “실행위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으니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날 회의는 손성대 장로의 폐회기도 및 오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2019 남가주 한인교회 VBS 일정

2019년 도 남가주 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VBS)가 6월 12일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시작으로 8월 7일 베델한인교회 소망부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올해 VBS 주제는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 'In The Wild', 'Power Up', '여호와만 참 하나님!' 등이다. 다음은 남가주 한인교회 VBS일정이다.



(박준호 기자)

일시	교회	문의	비고
6/12-14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	(714)772-7777	
6/12-15	다시아플교회(고원중 목사)	(949)502-4923	
	사랑의빛선교회(윤대혁 목사)	(626)744-9191	
6/13-15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213)210-1434, (213)797-2477	
6/13-16	샌디에고한빛교회(정수일 목사)	(858)874-2412	
6/14-16	도감사선교회(최경목 목사)	(626)233-4538	
6/17-19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	(323)466-1234	
6/17-20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909)680-7430	
6/17-21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목사)	(703)864-5568	
	오렌지한인교회(김운진 목사)	(714)871-8320	
6/18-21	베델한인교회(김한오 목사)	(949)854-4010	유년부/초등부
	샌디에고소망교회(이창후 목사)	(858)292-0999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	(818)832-6628	
6/19-21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818)834-7000	
6/19-22	세라토스장로교회(박규성 목사)	(562)677-7777, (562)860-5451	
	오렌지힐교회(백창호 목사)	(714)633-3104	
6/20-22	대홍장로교회(권영국 목사)	(310)719-2244	
	충현선교회(민중기 목사)	(818)549-9191	
	한길교회(박찬섭 목사)	(323)735-0200	
6/21-23	나성영광교회(박은성 목사)	(323)227-1400	VBS CAMP
	주님의영광교회(신성훈 목사)	(213)749-4500	
6/22-23	토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310)370-5500	Preschool
6/24-28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	(714)521-0991	
6/24-29	벨리연합감리교회(류재덕 목사)	(818)366-0089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이성현 목사)	(804)929-5517	
6/25-28	베델한인교회(김한오 목사)	(949)854-4010	유년부 유치부
	선한정지교회(송병주 목사)	(626)913-6611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	(714)893-1652	
	토랜스조은교회(김우준 목사)	(310)370-5500	K-5학년
6/26-28	인랜드온누리교회(조강왕 목사)	(661)313-9277	
6/26-29	남가주기쁨의교회(이항영 목사)	(310)326-0300	
6/27-29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714)446-6200	
6/27-30	남가주동신교회(백정우 목사)	(714)808-2744	
7/10-12	나성금란교회(이석부 목사)	(310)973-5106	
7/18-20	남가주든든한교회(김현인 목사)	(213)481-2779	
8/7-10	베델한인교회 소망부	(949)854-4010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박효진 장로 초청 부흥성회에서 박효진 장로가 설교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감사한인교회 박효진 장로 간증집회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로 박효진 장로(명문교회) 간증집회를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했다. 감사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구봉주 목사 인도로 열린 토요일 저녁집회는 이정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사랑성가대가 특별 찬양했다. 이어 박효진 장로가 '그래도 구하라'(겔 36:37-38)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박효진 장로는 불신자이자 연 41번 제사를 지낸 종가집 맏아들로 살면서 크리스천인 아내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청송감옥소에서 일하면서 죄수들을 폭행하며 살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내었다. 박 장로는 "결혼을 하고 싶어 거짓말을 하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아내는 며느리로서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 칭찬이 자자했지만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핍박받게 됐다"며 "어른들의 이혼강요가 있었지만 차마 헤어질 수 없었기에 교회의 비리를 캔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게 됐

고 집사직분까지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허상의 절대자라는 생각을 했으며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신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잡된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로는 "청송감옥소에서 간수로 일할 때였는데 당시 청송감옥소는 무법천지였다. 흉악범들과는 원수처럼 지냈으며 그들에게 나는 악명 높게 자였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다"며 "가장 죄질이 높았던 죄수가 있었고 틈만 나면 폭행을 가했었는데 사무실로 불러들인 후 그동안 폭행했던 것에 대해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처음엔 황당해하던 그가 결국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모범수가 됐다"고 간증하며 "이민생활이 힘들더라도 기도해야 한다. 자녀문제 부부문제 신분문제...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길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 모든 범사에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 주최 제20회 살롬경로잔치에서 박모세 목사가 한 참석자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살롬장애인선교회 주최 경로잔치

살롬장애인선교회 주최 제 20회 살롬경로잔치가 7일 오전 10시30분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렸다. 박모세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준형 목사가 기도하고 박모세 목사가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잠23:22-25)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 맛있는 점심식사를 나누며 선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를 가졌다. 박모세 목사는 "살롬경로잔치가 올해 스무번째 해를 맞이했다"며 "장애인 가족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가정이 깨지거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거의 80-90%의 가정이 파탄난다"며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나라의 문제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본 선교회가 '경로잔치'

를 통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비록 건강상 문제와 별세 등으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장애인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자 축복이 약속된 사역이기에 선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살롬장애인선교회는 1999년 6월 LA 코리아타운에 설립돼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선교를 위해 헌신해오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경로잔치 이외에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한방 물리치료 및 살롬미용실, 재활센터, 장학금 수여, 장애인가족초청 야유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음악회 등의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주요행사 및 일정 △창립 20주년 감사예배(6월 6일) △제20회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6월 8일) △제16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7월 14일). ▲문의: (323)731-7724 (박준호 기자)



코이노니아선교회 독거노인 초청 LA근교 나들이 및 노인잔치를 열었다

코이노니아선교회 독거노인 초청 나들이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가 은혜교회(김경환 목사) 후원으로 5월 4일에는 노인 32명을 모시고 사우스 코스트 식물원을 다녀왔다. 동 선교회는 매년 봄가을에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LA 근교의 명소를 나들이를 실시해왔다. 86에이커에 150,000그루 이상의 식물과 나무들로 가득 찬 식물원을 트램을 타고 돌아보며 이 식물원이 민간인들에 의해 매립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코이노니아 선교회에서 제공한 김밥과 다과를 먹으며 이리저리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본 선교회는 노인들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물의 아름다움을 하나라도 더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들이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이노니아선교회는 남가주살롬교회(김준식 목사) 후원으로 10일 골든웨스트 저소득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국, 중국, 멕시코 외에 다양한 인종의 노인 100여 명을 초대해 어버이날 노인잔치를 실시했다. 다양한 인종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사회를 보았고 심어롱 시간에는 각국의 언어로 '좋은 시간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하나로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부는 코이노니아 선교회 소속 윈즈오브조이 자선공연단의 공연과 김준식 목사의 설

교, 심어롱 시간, 2부는 잔치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선물 증정 그리고 점심식사 순서로 진행됐다. ▲연락처: (310)508-2733 박종희 목사 (기사제공: 코이노니아선교회)

서부교회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3회 총회

KAPC(총회장 김재열 목사) 제 43회 총회가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힐튼호텔(5711 W. Century Blvd)에서 개최된다. ▲문의: (818)282-6154 총무 이준우 목사

산타클라라UMC 박요한 목사 간증집회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홍삼열 목사)는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간증이 있는 찬양예배를 19일(주일) 3부 예배 시간에 갖는다. ▲문의: (408)295-4161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얼바인침례교회(6101 Walnut Avenue Irvine, CA)는 권태산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9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문의: (949)857-9425

무대 예술인 그룹 '시선' 주, 조연 앙상블 오디션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대표 클라라김)은 뮤지컬 '도산'에 출연할 주, 조연 및 앙상블 오디션을 실시한다. 뮤지컬 도산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세운 미주지역의 대표적인 동포단체 흥사단에서 주최하고 LA흥사단이 주관, 무대예술인 그룹 '시선'이 기획, 제작으로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8월 10일 월셔이벤극장에서 무대를 올리게 된다. 모집대상은 무대, 공연예술 전공학과 분야 재학생, 연극, 뮤지컬 경험배우 혹은 지방생이며 모집방법은 1차 서류심사, 2차 오디션, 접수방법은 이메일(musicaldo-san@gmail.com)로 하면 된다. ▲문의: 페이스북 메시지@seasuntag

LA 온누리교회 스트레스 세미나

매달 이민생활에 유용한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가 18일(토) 오후 3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페퍼다인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에스더 박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 자녀를 위한 축구교실과 놀이방도 운영한다. ▲문의: (213)926-8018

은혜한인교회 설립기념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설립 37주년 기념 부흥성회 및 임직식을 거행한다. 부흥성회는 5월 16일(목)부터 19일(주일)까지이며 11시 예배에 임직식이 있다. 강사는 지용수 목사(장원 양곡교회 담임). ▲문의: (714)446-620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부흥회

가디나 지역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목사)가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는 주제로 오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권주환 목사(베다니교회 담임). ▲문의: (310)973-5106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 미 서부투어 상영 기드온동족선교회(대표 박상원 목사)가 주최한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영화 '1919 유관순과 그녀들의 조국'(감독 윤학렬) 미 서부투어 상영이 실시된다. 미주 동포들의 관람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역사의 교훈을 주자는 취지에서 열리는 미 서부투어 상영은 영어자막이 제공된다. 일정은 △5월 17일: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오후 7시 △19일: 웨스트힐스장로교회 주일 오후 2시 △23일: 임마누엘교회(오후-저녁) △24일: 은혜한인교회 금요성령집회 △25일: 새벽-LA사랑의교회, 저녁-남가주비전교회 △29일: 달라스베다니장로교회. ▲문의: (425)775-7477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기도'로 가정 세우기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가족을 위한 기도문' 제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회장 김진덕 목사)가 '가족을 위한 기도문'을 제안했다. 하나님께 최초로 만드신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세우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가족과 매일 풍성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월요일: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권력, 명예, 출세라는 인간적 가치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가정,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소서. 부모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화요일: 부부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우산이 되게 하소서. 세찬 비바람이 불어와도 서로를 인하여 두렵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부부, 한 몸 되게 하소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슬플 때 같이 울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부부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기꺼이 공감하게 하소서. 다른 생각을 틀리다 여기지 않고 그 다름을 인정하게 하소서. 다른 마음을 이상하다 탓하지 않고 그 다름을 수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 집을 나누어지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부부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어 우리 부부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소서.

수요일: 아버지를 위한 기도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드넓은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늘 존경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게 하소서.

목요일: 어머니를 위한 기도

주님! 오늘도 어머니의 속깊은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언제나 아낌없이 푸근한 품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어머니의 따뜻한 기도가 가족들의 삶을 보듬게 하소서. 어머니의 노고와 수고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어머니의 돌봄에 늘 감사하며 그 마음을 본받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만큼 엄마 자신도 늘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엄마를 위로하여 주소서.

금요일: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아이를 마음 따뜻한 아이로 빚어주소서. 친구를 포용할 줄 알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하소서. 혹 상처받았을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아이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반반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소서.

토요일: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을 위한 기도

주님!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형제자매가정,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노숙인가정, 그룹홈, 1인가정 및 셰어하우스가정 등, 다소 낯선 형태의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합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손 내밀어 그 가정이 품은 생명과 사랑을 포용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가족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가정이 이 땅에서 사이 좋게 어우러져 주님의 높고 큰 뜻 안에서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현지인대상 목회, 선교결실위해 필요"

제4차 안디옥선교포럼 주최 AWMJ선교회 선언문 발표

제4차 안디옥선교포럼을 주최한 AWMJ선교회(이사장 신화석 목사)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장기목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9일 발표했다.

선언문에서는 "선교사가 현지인을 양육해 자립하도록 돕는 사역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선교사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장기목회를 하면서 목회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선교사의 목회는 궁극적으로 현지인들이 창의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면서 "선교사의 장기목회는 '목회는 하지 말고 현지 지도자 양성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선교계의 고정 관념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별 선교 거점'이 선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북에 물질만능주의 물든 기독교 전파 안 돼"

밥 페더린 OMS 총재 '성결교회 통일선교 서밋' 서간문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기독교를 어느 곳에도 전파하지 말 것.'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전통과 다른 형태의 교회가 생기더라도 제 역할을 다 하도록 기도할 것.'

밥 페더린 오엠에스선교회(OMS) 총재가 14일 '성결교회 통일선교 서밋'에서 '북한을 위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로 제안한 내용 중 일부다.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는 OMS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가 공동 주최했다. 페더린 총재는 이 행사의 '비전 메시지' 강연자로 나섰다.

OMS는 1907년 세워진 한국성결교회의 모체가 된 미국 선교단체다. 현재 기성 총회와 서울신학대와 협력해 탈북민 신학생 장학금 및 영어훈련 등을 지원하며 통일선교에 나서고 있다.

페더린 총재는 강연에서 "남한은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은 북한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북녘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든 '잘못된 기독교'를 수출해선 안 된다"며 "이런 '거짓 복음'은 나중에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공허감과 좌절감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예민한 말일 수 있겠지만 북한에 맞는 교회는 전통적 교회 구조와 다를 수 있다"며 "우리가 의도한 방식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생기더라도 그곳이 교회 자체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기도로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교지에서 '선교 대국'이 된 한국처럼 훗날 북녘 그리스도인이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을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자고도 했다. 그는 "북

도 답졌다. 선언문에는 "선교현장의 정보 공유와 전략 개발을 위해 6개 대륙에 거점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선교 인프라가 순발력 있게 선교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선교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AWMJ선교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 세계 순회 선교를 3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선교회는 "2021년까지 200개국 순회 선교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200개국 선교대회'를 2021년 5월 열기로 했다"고 했다.

포럼은 지난 6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 목회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선교사와 선교학자, 선교단체 관계자와 목회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이 복음에 문을 개방할 경우 교회와 사역자가 생기는 것은 물론 스스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운동도 펼칠 것"이라며 "반드시 올 그날을 위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강연에 이어 기성 총회의 '통일선교 정책간담회'가 이어졌다. '교단 통일선교 정책 및 비전'을 강연한 김진호 총무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해 영양살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일선교 물꼬를 트려 한다"며 "이러한 지원뿐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 성결교회 복원과 그곳에서 섬길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기성 소속 목회자인 주필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와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구원희 목사는 교단 통일선교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전했다. 오 목사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점진적 통일선교가 가능해지면 교단 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다. 교단 간 협력"이라며 "이를 감안해 다 교단 및 통일선교단체와 연합해 효과적으로 통일선교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또 "특별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를 향촌위원회로 격상해 교단 안팎에서 통일선교에 힘쓰는 인재들의 플랫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이후 북한에 세워질 교회를 '어린이센터'나 '방과후학교' 형식으로 세우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 목사는 "올해 말쯤 한국컴패션과 협약을 맺고 국내 탈북민 밀집 지역에 '어린이센터형 교회'를 세우는 일을 준비하고 있다"며 "탈북민과 우리 자녀가 함께 자라나며 통일을 이뤄가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향후 북한에 세워질 성결교회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 이원영 목사 생가 방치

'서류상 하천'이라며...기념관 리모델링 노력 불구

독립운동가 봉경 이원영(1886-1958) 목사의 생가가 언제든 침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교계와 지자체 등은 생가를 리모델링해 기념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생가의 소유권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률을 근거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봉경 이원영 선생의 사진, 목회자였던 이 선생은 1930년대 일제의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등을 거부하며 옥고를 치렀다.

이 목사는 퇴계 이항 선생의 14대손으로 1919년 3·1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국민일보 5월 8일자 33면 참조) 목회자가 된 후 1930년대부터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와 창씨개명 등을 거부하면서 4차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80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8세기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사의 생가 '사은구장(仕隱舊庄)'은 경북 안동 도산면에 있다. 안동시는 2010년 이 집을 시 문화유산 49호로 지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도 지난달 4일 사은구장을 한국기독교사적 36호로 지정하고 이 선생의 뜻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 이정우 안동서부교회 목사는 "사은구장은 이 목사의 삶이 깃든 곳"이라며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동 교계는 2015년부터 '이원영기념사업회'를 조직해 사은구장을 기념관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 교계의 뜻

동독 예나대 라이너 박사가 전하는 통일위한 4단계

제118회 장로회신대 개교기념 20회 국제학술대회 참석

"화해는 그리스도의 한 주제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요약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 증인의 근본적 개념이자 척도입니다."

독일 예나대 마틴 라이너 박사는 14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대에서 제118회 개교기념행사로 열린 20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예나대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다닌 대학으로 동독에 위치해 독일 과정의 독특한 체험을 겪은 대학이다. 라이너 박사는 예나대 화해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십자가 용서와 화해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화해와 평화의 길에 대해 쉬운 길이 아닐 거라고 단언한다. 두려움과 우리 삶의 심원한 변화가 동반한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신학적 기초 놓기: 신약에 따르면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기본 소식의 동어다. 교회의 모든 것은 화해를 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일절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2. 하나님과의 화해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화해는 평화를 향하는 하나님의 길이다. 화해를 통해 하나님은 평화를 세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해이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일수 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

3. 화해 화해연구 오늘날 세

에 공감한 경북도청과 안동시도 각각 예비비를 편성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은구장 처마에서 비가 새 방수포를 덮기도 했다"며 "지어진 지 오래된 한옥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계획은 사은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은구장이 하천범 상 침수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하천구역'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사는 1971년 안동댐 착공 당시 사은구장 일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거주자에게 보상을 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안동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 관계자는 9일 "도산면 일대는 범람 상으로는 하천으로 설정된 구역이 맞다"면서 "실제로 2002년 태풍 루사가 안동 지역을 덮쳤을 때 사은구장이 침수된 적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사은구장이 국가 유공자를 키워낸 생가인 데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자 형태의 주택구조여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목사의 증손자인 필근(67)씨는 "공사에 소유권을 넘긴 지금도 주기적으로 사은구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기둥이 기우는 등 문제가 있어 근본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 속의 평화: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신앙의 화해의 소식에 기초한다.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참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세상의 하나됨과 인간성의 하나됨에 전제한다. 평화의 참여는 기독교인 실존의 성취다. 교회는 화해의 교회이며 화해로부터 이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다.

4. 독일 재통합과 화해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는 한반도 재통합: 독일의 재통합은 독일의 집중적인 화해에 대한 수고에서 나타났다. 전쟁 이후 독일은 기근으로 10만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동독인의 3분의 1인 폴란드나 소련으로 이주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난민은 최대 1400만명에 이르렀다. 독일은 1989년까지도 여전히 유럽으로부터 재통합을 반대 받던 국가였다.

독일의 재통합은 화해로부터 시작됐다. 동독의 법률가와 복음주의 교회, 공의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모르는 이의 집을 찾아가 방문을 두드리고 속죄의 용서를 전했다. 프랑소앵 소년사역단체는 독일과 프랑스 청소년사역단체는 독일과 프랑스 청소년의 만남을 기획하고 후원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만나 교류했고 이들은 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 공동 교과서 작업도 이뤄졌다.

라이너 박사는 두 가지를 한국에 제안했다.

첫째로 함께 함은 화해와 통합의 필수적 기초라는 것이다. 재통합이란 이미 존재하는 통일성에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를 위해 두 국민을 연결시킬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과서와 박물관, 영화와 미디어에서부터 공동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목회포럼 내달 10일 포럼

한국교회 중견 목회자 모임인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아홉길사랑교회 목사)은 다음 달 10일 서울 서초구 은누리교회 양재성전 기쁨홀에서 '다음세대 미래 교육/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신자유주의 다원주의 탈(脫)권위 가정붕괴 소통부재 저출산 및 게임과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 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대적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게 될지 우려가 크다"

면서 "기독 아비세대는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자녀세대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나아가 이런 시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김봉준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장순홍 한동대 총장이 기초연설을 한다. 장 총장은 '4/14원도우한국연합' 대표회장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한다. 4/14원도우운동은 4

살부터 14살까지 10년간의 삶이 창문으로 작용해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다음세대 사역을 집중하자라는 운동이다.

오전에는 안중배 한세대 교수가 '기독교 다음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하며 오후에는 이종규 정주 순복음교회 목사가 '다음세대 미래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교도소 선교칼럼 (5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눈물

교도관의 부탁으로 밤낮없이 우는 재소자를 만나게 되었다. “무엇이 이토록 당신을 힘들고 아프게 하나요?” “나는 이제 곧 나가지만 갈 곳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 몇 개의 노숙자 쉼터들의 이름을 알려주었지만 인원에 비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낮았다. 수감 전에 노숙자였던 그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나 역시 마음이 아팠다.

예전에 콜로라도 덴버의 노숙자 쉼터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때 보니 수용인원은 400명 정도였는데 매일 밤 100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서 자게 한다. 그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더 이상 사람들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여전히 밖에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

나는 갈 곳이 없는 많은 재소자들이 다시 결국 교도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숙자들에게는 형무소가 길에서 자는 것보다 안전한 곳이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정신병 환자들

교도소에서 일하기 전까지 정신병 환자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신학생 시절 푸에블로시에 있는 산 카를로스 형무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곳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데리고 있다.” 예배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왜요? 왜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집보다 형무소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덴버 여자형무소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변기의 단추를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샤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물이 흥건한 바닥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나는 많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 올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재

“이것은 마치 적그리스도의 도장 같아요. 당장 바꿔주세요.” 교도소 병원에서 만난 재소자는 자신의 성경 첫 페이지에 찍힌 교도소 도장을 가리키며 화를 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경은 교도소의 소유이기 때문에 도장이 찍혀있는 겁니다.”

사고 후 뇌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도장이 없는 성경을 구해주었다니 잠잠히 받아들였다. 간단하고 쉬운 일에도 누군가의 설명과 도움이 필요했던 그에게는 친절한 롬메이트가 있었다.

그 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왔다. 그러나 그 방을 떠나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교도소가 아닌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아줄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크리스탈

아름답고 젊은 21세의 크리스탈을 기도모임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녀를 보며 감사했다. 세례를 받는 내내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내일이면 출소하지만 갈 곳이 없다고 했다. 내가 추천해 줄만한 곳도 없어서 더욱 더 마음이 무거웠다.

예배를 드리며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듯 했다. 그녀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누가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길 기도로 간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은 없었다. 그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조언해주고 지켜주며 지원해 줄 수 있는 과도기의 집이 필요했다. 하나님이 크리스탈과 같은 사람을 도울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세우시기를 계속 기도한다. 우리에게 노숙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긍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땅을 다지고 씨를 심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어느 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재소자들이 교도소를 떠난 후에 그들과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이 규율이다. 그래서 나는 전과자들을 직접 도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yonghui.mcdonald@gmail.com



드라마 구약 (7)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지난 회에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망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패역하고 범죄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망한다! 그러나 돌이키면 구원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때 앗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약 130년 후에 남방 유다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하여 혼혈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강제 이주시켰고, 앗수르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통혼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혼혈인들은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3번의 침략과 침략당할 때마다 포로가 잡혀가면서 서서히 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는가? 망할 나라를 왜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서 그 나라들이 망했는가?”라는 질문이고, 또 다른 질문은 “망했으니까 이제 끝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답하는 예언서가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 분들이 바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오늘은 그 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왜 망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망한 것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징계가 끝나면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렘 46:27-28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

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절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흠없던 그 나라들이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범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남방 유다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다 사라질 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포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한 도 정해 주셨습니다.

25:11-13,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남방 유다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타고 훼손됩니다. 무너지는 성전 앞에서 목놓아 울었던 예레미야의 통곡이 바로 “예레미야애가”입니다.

한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실 힘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꾀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모든 박수, 무당, 술객들을 불러서 꿈도 알아맞히고...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제국들인데,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뜨인 돌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결국에는 세계 제국들을 심판하고 난 후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처럼, 세계의 역사를 보니까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그 제국이 후에는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헬라제국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들로 나뉘었다가 로마라는 철과 같은 나라가 등장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나라는...하나님께서 지키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망했으니까 끝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

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주시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그 성을 둘러싼 후에 사다리를 놓고 공성되를 둘러 세우고, 철판으로 그 예루살렘을 압박하듯 포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현재 바벨론에 살고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33장에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겔33:2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렇게 심판 받고 징계 받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내실 것을 36장 3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서 주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살려내시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주시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는 다시 재건될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 주시고, 그렇게 재건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43장에서 해주십니다. 그렇게 재건해주시면서 붙이시는 이름은 48:35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나라 망한 것 아니다. 징계 받는 중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지킬 힘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니다. 나는 세계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재건해주겠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성취가 되겠지요?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dsukim@gmail.com



모였던 박수, 무당, 술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왕께서 명하신 일은 진짜 신이 아니면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등장하여 그 꿈의 내용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 모양의 한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며,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라는 놋으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공중에 떠 있는 한 돌이 그 신상의 발을 쳐서 그 신상을 부서뜨린 후에, 그 돌은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각기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신체의 부위들은 앞으로 세계사에 등장할

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다시 재건할 것이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내용은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이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그릇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제4회 PGM 전문인 선교사 집중훈련 6월 17-23일, 선교집회와 강의 및 현장실습

제 4회 PGM 선교사 집중훈련이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7일 동안 뉴저지크리스천 아카데미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선교 열정을 갖고 구체적인 헌신을 기다리는 전문인 선교 헌신자들을 초대하는 이 집중훈련은 PGM세계전문인 선교회(회장 호성기 목사)가 2016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PGM세계전문인선교회

는 현재 32개국에서 230여 명의 전문인 선교사가 26개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다. 스포츠, 농축산, 교수,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IT, VBS, 청소년, 실버,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들을 선교사로 훈련한다. 저녁 선교집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임재영 목사(필라델피아안도교회, 전 이스라엘 선교사), 고훈 목사(뉴욕하은교

회), 양충언 목사(히스패닉 목회), 김은범 목사(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가 차례대로 말씀을 전한다. 강사진은 안사무엘 목사(실행총무), 제이김 전도사(영어권 훈련부장), 박상수 선교사(교육전문/강사사역), 김현영 선교사(농축산전문/순회사역), 정준영 선교사(지역교회/강사사역), 폴현 선교사(KCBMC사무총장) 등이다. 또 현장실습은 이태후 선교사(필라델피아시민사역)가 전도훈련은 고대은/성은지 선교사(다민족교회개척사역)가

맡는다. 훈련내용은 △선교의 제 4 물결 △PGM 7대 핵심가치(성령충만, 디아스포라, H&N, 전문인,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 땅끝선교) △전문인 선교사예 △타문화 전도 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선교집회 등이다. 이번 훈련 등록비는 개인 400달러(부부 600달러)로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admin@pgmusa.org나 전화 (610)397-0484로 연락하면 된다.

기도/칼럼

라마단 30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이슬람의 최대절기인 '라마단'이 5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됐다. 해마다 이슬람의 월력에 의해 날짜가 바뀌는데 올해 라마단은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 동안이다. 라마단은 "더운 달, 가뭄의 땅"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신앙 5대 기둥 중의 하나이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금식기도를 한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음식, 술, 담배 등을 일체 입에 대지 않으며 금욕생활을 한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살라트'의 생활을 철저히 지킨다. 소녀는 7세, 소년은 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라마단행사에 참석해 금식기도를 해야 한다. 신실한 무슬림들은 매일 사원에 가서 꾸란을 배우며 기도한다. 특별히 27일 째 되는 날은 "능력의 밤"이라고 철야기도를 한다. 저들은 라마단의 계율을 지키며 기도하고 선행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라마단 기간에 제일 많이 돈을 버는 데가 식품 가게이다.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해지기 시작하면서 폭식을 한다. 배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는 해프닝도 많이 일어난다. 라마단이 끝나면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라마단은 이슬람의 종교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은 18억이다. 최대의 종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기 때문이다.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은 라마단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관심하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슬림 영혼들을 사랑하며 함께 30일 동안 중보 기도할 것인가?

bible66@gmail.com



선교 편지

인도네시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을 영접한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기도로 동역합니다.

△5월 6일 월요일부터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뜨는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음식뿐만 아니라 침도 삼키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무슬림들의 경건과 종교심이 더욱 부각되고 금식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에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금식으로 헛된 우상을 찾는 2억 명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진리를 알고 복음의 밝은 빛 앞으로 나오게 도와소서.

△지난 해 슬라웨시와 롬복섬, 자와 섬 동부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지진 등으로 아직까지 6,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이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거를 위한 공간이 속히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재난 이후 정책과 지원이 지속되게 하시며 어린 학생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지도자와 담당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여성 직업훈

련을 위한 유니온 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이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고, 한글 수업을 진행하는 장 선교사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학연장 교육을 위한 국제단체(인크리스)와 연합과 동역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출간된 아시아 신학연장교육 책자가 잘 보급되도록 도와주시며, 김 선교사가 세미나 준비를 할 때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소서.

△유니온 센터에서 사역을 도우며 동역을 시작한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신학 수업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성령충만, 지혜충만함으로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현준이(대학교 1학년)와 현민이(중3)가 학기말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좋은 믿음의 친구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게 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선교 동역분들이 많은 선물을 받고 주는 남은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하루 보내실 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순간 경령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며 돕습니다.

-주님 그늘 아래 인도네시아에서 김태호 장윤희 현준현민 선교사 올림
theo88@daum.net

헝가리

Dear,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해주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눈물... 멀리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헝가리에서는 5월 첫 주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날 비가 오고 추웠습니다.

몇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어머니에 대해 말하면서 울먹거리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예배 후에는, 70세 이상 어른들을 의자에 앉힌 후,

한국식으로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조그만 용돈을 넣어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잇음이 되지 아니하리라"(사44:21). 기도와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큰 힘이 되며 감사합니다. '복음전파'와 '예수님 제자 만들기'에,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겠습니다. 주여...! 소식과 기도제목, 간단한 사진 설명과 함께 드리겠습니다(사진은 왼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연관 있음).

1. 5월 첫 주일, 어머니날!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

사하였습니다. 모든 어머니들께 장미꽃을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자고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2. 지난 부활절 주간에 저희 구역 양로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우셨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데려가 특송도 하고, 예배 후에는 준비해 간 삶은 계란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안드레 할아버지(87세)는 혼자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특송도 곧잘 하십니다.

3. 저희 "소금과빛개척교회"의 16번 째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2003년 부활절 날에 지역 이름을 따서 "서서디커뮤니티교회"로 시작했고, 이사한 후에 "괴바니아개척 교회"로 바꿨다가, 다시, 처음 거리의교회 이름인 "소금과빛개척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30년, 60년, 100년 후에도 이 땅에 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4. 고아원에서, 양로원에서, 거리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아원의 심대들이 주님 사랑하여 교회에 나오도록,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학교를 잘 다니도록...! 리치, 밀란, 클라우디아, 다비드, 선디, 올란, 버나사, 비앙카, 토미, 에릭, 안치,

페트리치아... 저희 책, "나도 존중받고 싶다:를 읽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나도 울었지만, 내 친구가 그 책 읽으면서 이를 동안 울었다고..." 이 책은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사역을 하시며 하셨던 말씀들을 생생히 깨닫게 된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마8:20). 후, 책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두란노몰에서 저자구매(70%)로 남편도 배송해주겠다고요. 한 권에 8,400원이고, 무료배송. 저희 카톡(ID: hungarymom)으로 연락주시면 주문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미국은 LA두란노에서 저자구매로 한 권에 8.4달러이며, 배송비는 1.3달러 든다니,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5. "소금과 빛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시오.

5월 19일 주일예배 후,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참석하는 자들의 마음에 미션을 갖도록! 피테르 전도사, 타마쉬, 클라라, 주저, 로베르트... "너는 나의 잇음이 되지 아니하리라"(사44:21).

감사드리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 서명희 드림.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18)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Nehemiah 1:5-7

5)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 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I confess the sins we Israelites,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 have committed against you. (NIV 1984)

WORD & IDIOM

* awesome: 두려운 * keep a covenant with ~: ~와의 언약을 지키다 * covenant: 언약 * commands: 계명 * attentive: 신중한, * confess: 고백하다 * commit: (죄, 그릇된 일)등을 범하다 * decrees: 법령, 칙령, 규제.

GRAMMAR

5)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 이 문장은 기도의 시작 부분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으로 Lord 이후의 모든 내용은 형용사적 기능을 가지고 Lord를 수식하고 있다.

*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에서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로 Lord를 가리키고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s에서의 who는 those를 가리키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다.

* who keeps 는 선행사 Lord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원형동사(keep)에 s를 붙였고 who love는 선행사 those가 복수이기 때문에 원형동사(love)가 그대로 쓰였다.

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당신의 귀가 주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이 뜨도록 해주십시오
to hear the prayer () your servant is praying
그 기도를 듣기위해 당신의 종이 빌고 있는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당신 앞에 낮과 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인) => 이스라엘 백성인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빌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 let your ear be(원형동사) attentive and your eyes open(원형동사)은 주어가 생략된 5형식 문으로 무엇을 하도록 허락을 구할 때 사용하는 사역동사 Let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역동사 다음의 목적어 뒤에는 반드시 원형동사를 쓴다. your eyes open에서 open은 your eyes가 복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역동사로 시작된 문장이기 때문에 원형동사(open)를 쓴 것이다.

*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 안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다. () 이후의 문장은 앞의 the prayer와 sins를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고 있다.

I confess the sins () we Israelites,
나는 죄악을 고백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 have committed against you.
나 자신과 나의 아버지의 집을 포함하여 당신께 죄를 범해 왔다 => 저는 저 자신

과 제 아버지 집을 포함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범해 온 그 죄악을 고백합니다.

* including ~ 로 이어지는 문장은 we Israelites를 선행사로 취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축약한 분사구문이다. "~를 포함하여"로 해석한다.

STUDY & THOUGH

■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고레스의 포용정책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렘 25:11, 12; 29:10)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속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세계열강의 모든 세력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의 도구임을 알게 한다.

■ No power can be gained by any nation in this world without God's permission.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남은 안식(히4:5-11)찬319장

가나안 안식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참 안식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온 자는 왜 그것을 누리려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 여호수아는 참 안식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9). 구약의 여호수아가 남겨둔 가나안 안식은 그리스도안에만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안식입니다(10). 하나님의 6일 창조후 쉬신 안식은

오랜 세월동안 그 날을 지킴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 맛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순종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11). 이미 받은 구속일지라도 항상 열심과 수고를 통해 얻게 하심으로 참안식을 참되이 모든 영역에 누리게 하려고 안식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화 살아있는 말씀(히4:12-16)찬197장

중요한 안식의 누림 역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첫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까(12).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처럼 모호하고 혼란과 공허한 생각들의 선악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안식과 안일은 말씀에 의해 분별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거울처럼 보이지 않

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조명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밝혀줍니다. 셋째,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역시 말씀인 성경은 심판대에 퍼져 모든 행위의 판단기준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안식은 성경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 안식을 누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4:14-16)찬144장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죄를 넉넉히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첫째, 그의 승천이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다 이루어졌다는 선언은 승천으로 더 확실한 속죄를 증거했습니다. 그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요일1:9). 둘째, 우리의 연합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친히 참사람이 돼 온갖 고난을 당하셨음은 우리의 약점을 용납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때를 따라 적합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항상 자기 백성을 시시때때로 도우심으로 그의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한번으로 마쳐진 그 긍휼이 영원히 계속됨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분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목 제사장 직분에 맞는 그리스도(히5:1-4)찬318장

사도는 제사장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예수그리스도를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겸손히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 임무에 임했듯이 그리스도는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양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 둘째,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

리셨습니다. 그는 죽음과 피로써 참다운 속죄를 이루심으로 구약의 상징과 모형이 실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동시에 대속의 제물로서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부가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제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은혜를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금 성부가 준비하신 대제사장(히5:5-7)찬506장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충분한 자격을 가집니다. 어떻게 구속이 성취됐습니까? 첫째, 그는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5).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성부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얻은 직분인 것은 아론처럼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준비되었습니다(6). 참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의 분

제를 해결해야만할 대제사장이기에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구속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성령은 밝혀주셨습니다. 셋째, 그는 통곡과 눈물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7).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는 자기 백성을 대신하기 위해 겹세마네에서 통곡의 눈물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토 순종을 배우신 아들(히5:8-9)찬97장

계속,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자격문제를 논함으로 그의 속죄가 영원함을 주장합니다. 아론의 직분이 상징주의 모형으로 나타났을 뿐 오직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만이 영원한 효력을 가졌기에 더 완전한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첫째, 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8). 둘째, 그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9). 그의 완전한 구속의 성취

는 영원한 효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즉각 죄사함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 죄짓는 삶은 결코 마라지 않기 때문입니다(요일1:9). 셋째, 독특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10). 그의 제사장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론의 직분을 결코 견줄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순종으로 이룬 그 효력을 누립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evittown,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애 배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집회: 오후 8:00 무지,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행복: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 무,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회: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플랫폼 N세대 네트워크

N세대(Next Generation) 네트워크 3회 모임이 지난 5일 저녁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뉴욕선교사의 집에서 열렸다. 청년과 유스,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의 만남인 N세대 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장규준 목사(뉴욕주교교회)와 조희창 목사(낮은울타리 대표)가 이끌어가는 이 단체에 대해 장 규준 목사는 N세대 네트워크가 “조직이 아닌 플랫폼의 개념으로 생각해달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자생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목사가 “N세대(Next Generation)들의 비상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내용을 게재함으로 N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N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 없는 교회의 미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교계의 현실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들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UCLA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교회에서 유스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70%가 교회를 떠나고, 졸업을 할 때에는 20%마저도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다음 세대 상황을 살펴봐도 세 가지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뉴욕 뉴저지 지역

80-90%의 교회가 미자립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교회들마다 생존 이유로 장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고, 열악한 재정 상황과 담당 사역자 부재로 인해 청년/청소년 사역 활동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교회연합사역이나 파라처치운동(Para Church Movement) 사역 역시 많이 위축됨으로 인해 작은 교회 청년/청소년들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 문화와 인본주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청

소년들과 청년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한 교회의 대안이 마땅히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 이상 안타까워하며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는 마음의 부담 가운데 N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자들의 네트워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N 세대들이 비상하는 부흥을 꿈꾸며 모여서 기도하고자,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인 대안을

장규준 목사와 조희창 목사가 이끌어... 2018년 12월부터 2달에 한 번씩 모임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자 제 1회 N세대 네트워크 모임이 2018년 12월 13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격월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고, 현재 3회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N세대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대안(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N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네트

워크 형성입니다. 수평적으로는 N 세대 사역에 관심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1세대들을 네트워크 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1.5세대 네트워크, 2세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1세대 네트워크, 1.5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2세대 네트워크 간의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물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N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팀(그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N 세대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

하는 Think Tank 그룹, N 세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중보기도 그룹, 더 나아가서는 실제적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그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N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적인 사역



지난 5월 5일 열렸던 세 번째 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청년/청소년을 위한 집회/수련회/대회를 개최하는 일, N 세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육하여 세

던 그 시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 신정왕국을 이루어갔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재현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모임입니다.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개단체주의를 벗어나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 안에서 연합할 때 성령께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놀라운 N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N세대 네트워크를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gjchang@hanmail.net(장규준 목사), woollarius@gmail.com(조희창 목사)

(유원정 기자)

우리는 일, N 세대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지역교회(Local Church)와 파라처치(Para Church)를 연계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N세대 네트워크는 전도서 4장 9-12절의 삼겹살 동역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몸부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절망의 시대에 사사 시대 이후 어두웠

효과적 전략이 건강한 소그룹 만든다!

리더십저널, 뉴송교회 폴 커크 목사의 소그룹 활성화 노하우 보도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의 삶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깊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소그룹의 장점들 때문에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든 소그룹이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조건 소그룹으로 모인다고 해서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소그룹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소그룹 자체가 건강해야 한다. 폴 A. 카크 목사는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효과적인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8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1.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시작하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방법은 담임목사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리더에 대해 회의적이고 계급적인 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만일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형태라면 새로운 소그룹 사역을 만드는 것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2. 리더에게 적절한 지원, 훈련, 자료를 제공하라. 우리 소그룹이 초기에 저질

렀던 실수는 리더를 발굴해서 훈련하고 동기부여까지 하고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도 없이 그냥 느슨하게 풀어둔 것이다. 효과적인 소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더에게 훈련 자료를 필수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지속적인 소그룹을 단기 특별관심 소그룹으로 보충하라.

많은 개개인들은 정규적인 소그룹이라는 환경에서는 적절하게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욕구가 있다. 이런 욕구에는

관계, 이혼, 질병에서의 회복 등이 포함된다.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이라면 멤버들의 특별한 필요를 다룰 단기 그룹이 있어야 한다.

4. 새 리더들이 자신의 그룹을 모집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뿐 아니라 비

소그룹의 인원을 구성할 때 각 그룹의 리더들이 자신의 그룹을 구성하게 하고 목회자들은 비상수단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전략은 소그룹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접

근을 가능하게 하고 신뢰감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한다. 새 리더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멤버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소그룹의 일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전도 목적으로 권장돼야 한다. 그룹 멤버들이 섞여 있게 되면 그룹은 일방적인 그룹보다는 더 빨리 영적인 깊이가 있는 곳으로 움직여 간다.

5.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를 찾아내라.

은사가 있는 교사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좋은 교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어서 소그룹을 경험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잠재적인 리더들은 다른 은사도 갖고 있어야 한다. 소그룹은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데 교사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리더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바울의 말과 같이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롬 15:14).

6. 소그룹이 외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전하라.

소그룹에게 봉사와 선교, 아웃리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잡아먹긴 하지만 충분히 수고할 만하다. 소그룹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을 붙들 때, 그 경험은 강력할 뿐 아니라 영향력도 극대화 된다.

7. 소그룹을 완벽한 공동체로 선전하지 말라.

소그룹 사역에 대한 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유토피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그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진행 중인 불안정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에 대해서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달콤한

것도, 편안한 것도 없다. 공동체는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숨기지 않고 희망의 몸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우리 혼자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잔을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따라서 혼자일 때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각자의 상처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일부로서 살아갈 때는 치유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게 된다.”

8.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되 획일적인 지침은 삼가라.

소그룹 커리큘럼 교재는 편의성 때문에 선택하기보다는 특정한 필요에 바탕을 두고 연구해서 선택한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는 적극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획일적인 교훈이나 지침을 요구하는 자료는 피해야 한다. 신빙성 있는 그룹이란 탄력적이며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룹이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전면 1/8	7.7cm × 11.7cm		
15.5 × 2.8cm		\$250.00		
둘출 Listing	7.7cm × 5.8cm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